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9
2010.07.21
gonggam.korea.kr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글로벌 녹색 중견기업 1천개 키운다

저소득층 청소년 멘터 나선 아이돌 '슈퍼주니어'

인터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반복되는 여름철 재해, 악순환 막겠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명예경찰소년단**이 함께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키는 힘' 모으자

지난 6월 한 초등학교 내에서 등굣길 학생이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가 단순히 가해자 처벌과 같은 형사법적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문화적 대책이 함께 요구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깨우쳐주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므로 손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 부모나 어른의 보호 없이 홀로 남아 있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피해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가족 및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범죄보다도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대상 확대 적용,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흉포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대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위험 아동 집중 보호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2백4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을 강화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 있다. 흉포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의 대책 외에도 부모나 이웃 어른들, 나아가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집 주변, 학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유심히 지켜본다면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보호에 한목소리로 동참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지키는 힘'이다. G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Weekly
2010.07.21
No.69(통권 170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7월 9일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내 안전 지킴이벨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서울 상일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들은 안전 지킴이벨 모형을 직접 만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일러스트 · 황중환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7.2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꽃으로도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한 점 그늘 없이 무럭무럭 자라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만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꽃같이 귀히 여겨야 할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8호(7월 14일자) 기획특집 '녹색여행으로 여름 나기'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름 휴가지, 국내로 정했어요"

"'국내 최고의 여름 휴가지 농산어촌 마을 5곳'을 읽고 명품 농산어촌을 알게 돼 기쁩니다. 피서라고 하면 흔히 바다와 산, 국립공원 등을 연상하게 마련인데 자연과 문화가 소통하는 농산어촌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하고 소중한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는 농산어촌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하네요."_woohh0419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생태관광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우포늪, 순천만 등 10곳의 생태관광지를 정했다니 실로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 7월에 개장한 백룡동굴 체험 사례를 읽다 보니 저 역시 이번 여름휴가를 그곳으로 가볼까 고민 중입니다. 다양하고 자세한 녹색여행 기사들이 실려 휴가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_applejam74

"자전거와 철도가 만난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 관련 기사를 읽고 이번 휴가는 자전거 여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곡성의 섬진강, 충북 옥천 인근의 금강, 충남 보령의 서해안 등 강과 바다를 따라 씽씽 달리는 자전거 여행,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설렙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유해나

68호 'G20 어떻게 준비하나-G20 서울 심벌 청사초롱 공개'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오는 11월의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가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차례 국제회의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주최 측과 관계자들, 국민 모두 잘 협조해 G20 정상회의를 잘 치러냈으면 합니다._최남이

68호 '명사가 읽는 책-논어, 사람의 길을 묻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평소 책 읽기를 즐겨하지만 '고전'은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 때문에 읽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서평론가 이권우 씨가 추천한 〈논어, 사람의 길을 묻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고전 속에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공자 관련 고전들을 읽어볼까 합니다."_이유리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알립니다

미래의 새만금, 상상일기로 써보세요

'새만금 2020 상상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월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과 관련해 미래의 새만금 모습을 상상일기로 쓰면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 | 2020년 새만금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나의 모습
참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공모 분야 | 그림일기(5~10세 어린이 대상, 4절지 도화지)와 일기(연령 및 자격 제한 없음. A4용지 3장 내외)
접수 기간 | 7월 23일까지
접수 방법 | 공모신청서와 작품을 우편 및 e메일(skrlf99@korea.kr)로 접수
접수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희망2길 104 전주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수상자 발표 | 8월 20일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예정

전주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 063-270-1847

무료 문화체험 '여름夏,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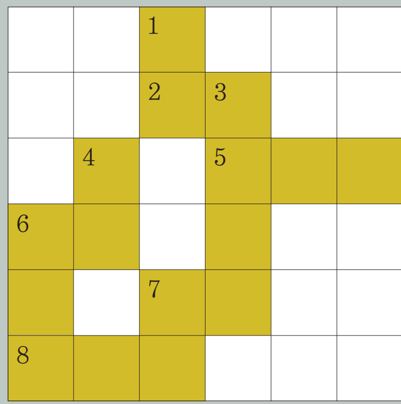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무료 문화체험 프로그램 '여름夏, 놀자'를 제공한다. 7월 셋째, 넷째 주말에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광주지역 대학 미술 전공 대학원생이 행사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e메일(alsdkalsk@ 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夏, 놀자' 문화체험 프로그램

일시	구분	주요 내용
7월 24(토)~25일(일) 오후 2~4시	재활용 소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재활용해 간단한 소품 만들기
7월 31일(토)~8월 1일(일) 오후 2~4시	투명 우산 꾸미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로고 활용해 투명 우산 꾸미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062-236-0481 cct.go.kr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7월 2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2. "야~신나는 여름OO이다."
5. 교사가 교재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곳.
6.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뀜. "사업이 점차 OO되고 있다."
7.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오랫동안 OO이 끊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8. 어떤 일에 도움이 되게 함.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회질서 확립에 OOO하다."

세 로

1.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어린이 대상 성범죄 OO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아버지순찰대 등 가족들이 나섰다."
3. 학교에서 집단으로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일.
4.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야구르트 아줌마, 우체국 집배원, 보안업체 등 지역사회 일원이 우리 동네 어린이 OO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6. 범. "OOO 담배 피울 적 이야기다." "OOO 선생님."
7. 가지고 있는 일 또는 그런 물건. "총기를 불법으로 OO하고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OO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Weekly 공감〉 67호(7월 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에너지 4 구절판 6 약장수 8 수온 9 캐나다
세로 2 지구 3 공판장 5 절약 7 수리온 8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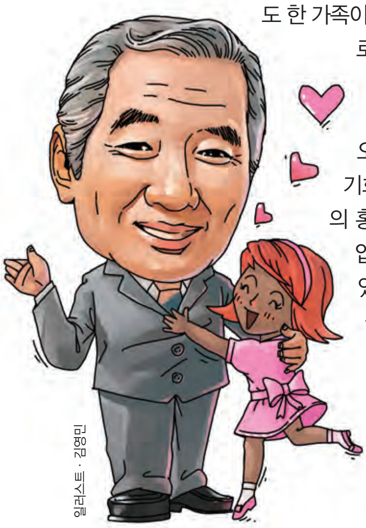
〈Weekly 공감〉 6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강언식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다운길
김단경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김성찬 · 제주시 일도2동 대유대림아파트
장효윤 · 강원 춘천시 칠전동 대우2차아파트
제길수 ·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입양'"

송재호 입양 홍보대사

국격(國格) 높이기 캠페인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것이 입양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때 차인표 신애라 부부가 여자아이를 입양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일은 입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그러한 관심이 무뎌질 무렵 이들 부부는 또 다른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다. "입양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출산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만나는 것, 그래도 한 가족이 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입양의 의미다.



일러스트 · 김영민

내가 입양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2007년 나는 우연한 기회에 입양기관 중 하나인 홀트아동복지회의 홍보대사를 맡아 그때부터 또 다른 의미의 입양가족이 됐다. 평소 입양에 큰 관심이 있었거나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다. 그저 따뜻함을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었고, 그것이 어떤 분야든 관심을 가져보자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더 큰 관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뜻을 담은 이 일을 위해 그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1천3백14명의 아이가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입양가정이 생겨나리라고 기대한다. 이렇듯 입양문화는 이제 그리 어렵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다. 최근에는 수많은 입양가정이 스스로 입양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입양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입양"이라고 말한다. 또 가장 잘못한 일은 "입양을 하기 전 너무 많이 망설이고 고민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입양 재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그간의 많은 고민과 갈등을 무색케 하면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입양이다. 입양에 관심은 있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머뭇거렸다면 이젠 용기를 불끈 내보는 건 어떨까.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글 · 송재호(탤런트)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최정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1. '4대강 수변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9월 확정' 기사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새롭고 아름답게 변할 4대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던 차에 수변공간 조성 계획이 나와 그간의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지형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4대강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2. 이번 기획특집은 휴가를 앞둔 독자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자연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녹색여행'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들로 그런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3. 여름만 되면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온몸이 축 처지는 등 건강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철 기운 살리는 음식이나 운동법을 알려주세요.

황복희 대전 동구 성남동

1.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 기사를 읽고 어느새 경부고속도로의 나이가 불혹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 경제의 비약을 위해 건설된 경부고속도로의 옛이야기를 읽자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 '여름휴가' 하면 이제껏 해외여행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획특집 기사를 읽으면서 녹색생활도 실천하고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명소가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3. 아이들이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2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미래의 주인공, 우리 아이를 지키자'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300℃
청자 소성온도 1300℃를 상징하는 브랜드

Korea Be Inspired 문화체육관광부선정 9년연속최우수축제

제38회

강진청자축제

The 38th Gangjin Celadon Festival



청자는 세계속에 빛나는 우리 민족 문화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 국보·보물 청자 90%의 산실 그 청자의 성지,
강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0년 **8**월 **7**일(土) ~ **8**월 **15**일(일) / 9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도요지

www.gangjinfes.or.kr 1688-1305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연합뉴스, 서울메트로



일러스트 · 이우정

“글로벌 녹색 중견기업이 미래의 주인공”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정부는 2013년까지 친환경 제품 생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녹색 중소기업 1천 개를 육성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추진할 만한 유망 녹색기술 2백 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녹색산업이 세계 경제계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부상하면서 각국은 녹색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경제의 지향점으로 내세운 우리 정부도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쟁에서 적자(適者)로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7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녹색성장’ 구호만 부르짖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거듭한 관계 부처들은 저마다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사진들을 내놨다.

먼저 중소기업청의 보고 내용이 눈에 띈다. 국내 산업 전반에 녹색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면 우리나라 기업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고용 인력의 88퍼센트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청의 정책적 결과물은 주목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친환경 제품 생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1천 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까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등을 담당할 중소기업이 1천 개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 요지다.

1천 개의 녹색 전문 기업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육성된다. 이 같은 목표에는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요 녹색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일례로 태양광발전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의 경우 현재 74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핵심 부품인 LED칩은 70퍼센트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30대 대기업, 녹색 분야 22조4천억원 투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녹색기술창업대학'이나 '녹색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등을 늘려 친환경 산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친환경 분야에 전용될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녹색 및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의 규모도 지난해 1천50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녹색산업 및 신성장 사업 분야에 투입될 정책자금의 규모도 지난해 1천7백30억원에서 올해 4천2백23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들이 추진할 만한 유망 녹색기술 개발과제도 선정된다. 태양광과 LED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9대 분야에서 단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부품·소재 개발사업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까지 2백 개의 과제가 정해질 예정이다. 여기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와 제품 사업화 등에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제품을 대기업에서 구매해주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코트라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와 해외무역관 녹색수출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수주 활동을 돕기로 했다. 이는 정보나 해외 영업망이 부족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들도 과감한 녹색 투자에 나선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대 대기업이 녹색 분야에 22조4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액수는 지난 3년간 총액인 15조1천억원과 비교해도 48.2퍼센트나 증가한 규모다.

세부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8조 9천억원, 그린카에 5조3천억원,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에 4조 3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카 분야의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의 투자 액수보다 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융을 총동원해 녹색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매기는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까지 1백7조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정책금융공사가 1조5천억원을 출자해 신성장동력산업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2008년에 1조4천억원이던 녹색 R&D 예산도 2013년까지 3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2차전지와 미래 원자력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화·정보화 시대에는 몇 개의 대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녹색성장 시대에는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안희(연합뉴스 산업부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7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반복되는 재해, 악순환 막겠다"

기상이변과 더불어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도 나날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제는 예측불허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4월 취임해 나라살림에 여념이 없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정부의 올여름 재해대책을 들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두세 차례의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각종 재해에 대한 '철저 대비와 신속 대응'을 강조했다.

맹 장관은 "먼저 풍수해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 대비기간'으로 정해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재해 취약지역 1만6천여 개소를 점검하고 정비했다"며 "특히 올해 착공된 4대강 보(洑) 주변지역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바로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7월 11일 강원 춘천시 추곡천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맹 장관은 "풍수해에 대비하고 특히 반복되는 재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해 빈발지역을 돌아보았다"면서 "수해복구 사업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장의 재해 대비 상황을 전했다.

맹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제1회 의정·행정대상 국회의원부문 대상(2003년)을 수상하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위원(2005년)에 선정되는 등 주목받는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해가 동일지역에서 반복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적잖습니다. 재해가 같은 지역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맹형규 장관이 7월 11일
강원 춘천시 추곡천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 되풀이되는 원인은 피해복구가 단순 땜질식 원상복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단순복구가 아닌 영구복구를 지향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이 특히 절실한 지역이 있다면.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발생한 인명피해 유형을 보면 하천 급류와 산사태로 빚어진 피해가 전체 풍수해 인명피해의 70퍼센트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하천 급류와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돌발 홍수 위험지구 3백50곳을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의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전까지 따로 흩어져 있던 행정안전부의 위기관리상황실,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각종 자연재해, 인적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출범함으로써 상호 업무협조와 공조체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7월 11일 충주댐 전망대 승강기의 자동운전 오작동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재난위기상황실이 신속히 상황을 접수해 소방상황실의 구급·구출과 재난상황실의 현장 대응을 연계함으로써 38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멈춘 승강기 안에 갇힌 관광객 10명을 짧은 시간 안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소개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평균 1.9명인데 한국은 2.3명입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폐쇄회로 TV(CCTV) 추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화학적 거세도 검토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범인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피해 어린이와 가족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엔 공공행정의 날' 기념식에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글로벌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최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수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 전자정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부문뿐 아니라 비(非)IT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수상 덕에 올 상반기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7천2백96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한 해의 전자정부 수출 실적(6천6백70만 달러)을 이미 넘겼습니다.

현지에서 사주캉(沙祖康) 유엔 사무차장과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 '유엔 공공행정지식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무엇입니까.

유엔 공공행정지식 시스템은 1백92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전자정부의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향후 세계 전자정부 구축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우리나라와 유엔의 전자정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국지성 호우는 최근 우리나라에 잦은 기상 현상이다. 지난해 7월 국지성 호우로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교차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

태풍과 집중호우도 사람 하기 나름

해마다 7~9월엔 자연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번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발표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친 태풍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국지성 호우와 더불어 여느 해보다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

7월 11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1백 밀리미터가 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호남과 충청지역 등 남부지방에 시간당 평균 10~20밀리미터, 최대 40밀리미터가 넘는 비가 쏟아져 한때 호우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으며, 이날 오후 7시 무렵 전남 함평 2백36.5밀리미터, 담양 2백9.5밀리미터 등 집중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란 보통 한 시간에 30밀리미터 이상, 혹은 하루에 8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집중호우는 물론 특

올해 7~8월 기상청 전망

	평균기온	강수량
7월 하순	평년(20~27℃)과 비슷	평년(50~135mm)보다 많음
8월 초순	평년(20~27℃)보다 높음	평년(39~133mm)과 비슷
8월 중순	평년(19~27℃)과 비슷	평년(44~112mm)과 비슷

정 지역에만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호우는 예보가 어려우며,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7, 8월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리는 집중호우와 지역적 특성까지 가세한 국지성 호우가 잦고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1999~2008년)간 일어난 자연재해 1천1백64건 중 9백3건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1년에 입는 자연재해의 77.5퍼센트가 이 기간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이 18조1천8백36억5백만원에 달한 가운데 7~9월 피해액만 15조7천3억4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의 86퍼센트에 이르는 수치다.

기상청은 7월 13일 발표한 '1개월 전망(올 7월 21일~8월 20일)'을 통해 향후 한 달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섭씨 20~27도)하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1백52~3백61밀리미터)하겠으나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으며 지역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즉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2, 3개 태풍 예상 … 국가태풍센터 '5일 예보' 시범 실시

게다가 올해 2, 3개가량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적었지만 올 들어 제2호 태풍 '꼰선(Conson)'이 7월 12일 오전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천30킬로미터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지난 6월부터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풍에 대해 '5일 예보'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사흘, 즉 72시간 뒤까지의 태풍 예상진로를 예보해왔으나 이를 닷새 뒤, 즉 1백20시간 뒤 예상진로까지 발표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지난해부터 '5일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5일 예보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태룡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은 "5일 전부터 예보를 하다 보면 태풍의 진로가 1천 킬로미터 정도 오차가 생기기도 하지만 태풍으로 생기는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과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연중무휴 '131 기상콜센터'

기상상담사 24시간 날씨 궁금증 해결

여름 휴가철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곳이 '131 기상콜센터'다.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131 기상콜센터는 기상상담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날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1번으로 전화를 걸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네 예보가 자동으로 안내되고, 자동응답(ARS) 번호에 따라 오늘과 내일 날씨(1번), 해상 날씨(2번), 기상 특보(3번), 현재 날씨(4번), 주간 날씨(5번) 등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0'을 누르면 곧장 기상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다.

2008년 7월 31일 콜센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6월 말까지 이용 고객은 1백60만명이 넘는다. 특히 장마철이던 2009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용자는 무려 5만명이나 됐으며, 올 들어 매달 평균 1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기상청은 상담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철에도 방재기간 특별운영대책을 마련해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유지보수 특별운영대책 등을 세워놓고 있다.

전병성 기상청장은 "'3백65일 24시간 쉼 없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취지로 개설한 131 기상콜센터 서비스를 더욱 보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상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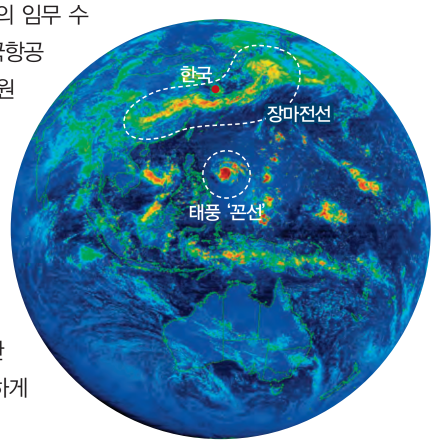
천리안 위성 목표정지궤도 성공 진입

최초 수신한 기상·해양관측 영상 공개

지난 6월 27일 발사된 천리안 위성이 목표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기상 및 해양관측 영상을 전송하며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기상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는 7월 14일 천리안 위성에서 최초로 수신한 기상관측 영상(사진)과 해양관측 영상을 공개했다.

최초 기상관측 영상은 7월 10일 국내지상국이 관제권을 인수한 이후 이틀 만인 7월 12일 천리안 위성이 목표정지궤도(동경 1백28.2도 적도 상공)에 진입한 후 촬영한 것을 수신한 것이며, 해양관측 영상은 하루 뒤인 7월 13일에 수신한 것이다.



기상·해양·통신 복합위성인 천리안의 임무 수행을 위한 관제를 맡고 있는 곳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통신위성센터의 요청을 종합 조정해 위성의 일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영상 촬영과 통신 운용을 위한 명령전달 등 관제를 담당하고 있다.

천리안 위성은 올해 말까지 시험 운영을 마치고 향후 7년간 기상 · 해양관측 및 공공통신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간부들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실시간 화상채널을 통해 기상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돌발 피해’ 3시간 전 예측 통보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은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다. ‘예측→경보→대응’으로 이어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도 7월 10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풍수해 중점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경북 봉화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10~70밀리미터가 쏟아져 ‘물벼락’이나 다름없었다. 경북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재산피해액만 4백42억원. 사망자도 8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컸다.

피해가 예상보다 컸던 것은 당시 태풍 ‘갈매기’의 간접 영향 탓도 있었지만 재해안전당국이 산간 계곡의 새벽 집중폭우 가능성과 이에 따른 피해 경로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재해 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을 구축,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강우량, 적설량, 태풍 진로 등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취약지역과 피해우려지역을 사전 예측한다. 이 시스템에서 얻어진 재난, 호우, 해일 상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도 매일 한두 차례씩 공개된다.

최근 늘고 있는 초단기 강우도 3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예측되면 소방방재청 정보분석팀이 10분 단위로 하천 범람, 침수 등 피해지역 상황을 예상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다.

실시간 '강우관측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는 국토해양부 1천16개소, 기상청 5백98개소, 지자체 1천8백48개소 등 총 3천4백62개의 관측시설이 연계된 시스템으로 시간당 4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릴 때는 모든 현장 상황근무자에게 경고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강우핵'의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과 관리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소방방재청은 산지의 돌발 홍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일본 남부를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잦아짐에 따라 한반도 역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홍철 방재대책과장은 "7월 7일 일본 가고시마 지역의 산사태(누적 강우량 2백50밀리미터)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상 상황을 고려해 급경사가 있거나 산지 지형이면서 돌발 홍수, 집중강우가 예상되는 곳으로 지정된 1백45개 지구(시범운영 중)에 대해선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에서 '위험도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홍수 예상 3시간 전에 위험을 사전 예측한다. 여기서 나온 예·경보 상황 정보와 예측 강우량 등을 각 지역 재난상황실에 제공해 피해 위험성을 줄인다.

재해 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으로 자연재해 대응

공사가 진행 중인 4대강 보(洑)에 대한 긴급 대응체제도 가동했다. 우선 수위 조절 예측이 관건이다. 이에 4대강 16개 보와 해당지역의 기상 상황 및 예상 수위에 따라 관리단계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해 단계별로 홍수 예방 조치를 적용한다. 수위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수문자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각 보별로 '주의 수위'에 도달하면 무조건 현장 비상대응체제가 가동된다.

풍수해가 잦은 저수지, 공사 진행 사업장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1만4천2백78개 저수지 가운데 4백4개소를 '위험저수지'로 분류했다. 이 중 2백77곳을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로 확정해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하류지역 주민들을 무조건 대피시킬 계획이다. 전남 광양 진상지구, 경남 김해 외동지구 등 시가지와 공단 침수 복구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 5곳에 대해서는 배수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이전 호우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해 복구 중인 3개소(전남 광양 망덕지구, 경남 김해 남산지구, 경남 하동 노량지구)



소방방재청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산간 계곡 및 유원지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강우량을 자동으로 관측해 경보 발령 및 안내방송을 해주는 장치다. 사진은 충북 괴산군 달천 산간 계곡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설.

태풍·호우 특보엔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 특보 때

- 침수 예상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의 주민은 신속히 대피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외출 금지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 경청
- 건물 간판, 위험시설물, 건물 옥상, 산사태 위험 비탈면 접근 금지
- 고층 아파트·건물 거주자는 유리창에 테이프 등을 부착해 파손 방지
-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접촉 및 집 안팎의 전기 수리 금지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은 단단히 묶음
- 이웃이나 가족 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선박은 단단히 묶고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관

호우 특보 때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거주 주민 대피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외출 금지
- 대형 공사장, 산사태, 비탈면 등 붕괴 위험지역 접근 금지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고층 아파트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접근 금지
- 침수 예상 건축물 지하공간에 주차 금지
- 논둑은 미리 점검하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농경지 침수 방지
- 산간 계곡 야영객 미리 대피



소방방재청은 산지의 돌발 홍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아DB

는 재붕괴를 막기 위해 옹벽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풍수해가 예측되면 빠른 경보 전파가 필수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기존 주 전파 경로인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 재해문자 전광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산간 계곡의 자동우량경보시설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경보시설 점검 횟수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자동음성통보 및 재해문자 전광판 서비스는 재난 상황 초기부터 활용되는데 올해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폰 활용한 DMB 재난경보방송 비중 높여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 있는 DMB 재난경보방송의 비중도 높인다. 소방방재청과 KBS는 지난 6월 채널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보 전파와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피·통제체제도 강화했다. 특히 현장재난관리관의 역할 비중을 늘렸다. 현장재난관리관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충남 논산시 병암리, 전북 완주군 운주면 등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 재빨리 통제를 해 피서객과 주민의 인명피해가 적었다.

소방방재청은 현장재난관리관의 재난정보 전파 및 현장 상황 수집 등에 관한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방재관리국 직원 60명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이재민 구호대책

재해구호기금 7485억원 편성

풍수해 피해를 본 이재민의 구호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이재민에게 가장 필요한 임시주거시설 1백20동과 재해구호물자 13만5천 세트를 확보했다.

구호물자 구입과 운송, 자원봉사자 급식 등을 위해 7천4백85억원의 재해구호기금도 마련했다. 여기에 복권위원회에서 긴급구호비로 지원하는 10억원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피해조사 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조기 협의를 통해 복구계획 수립 기간도 27일에서 18일로 단축한다. 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지난 5월과 7월 13, 14일 두 차례에 걸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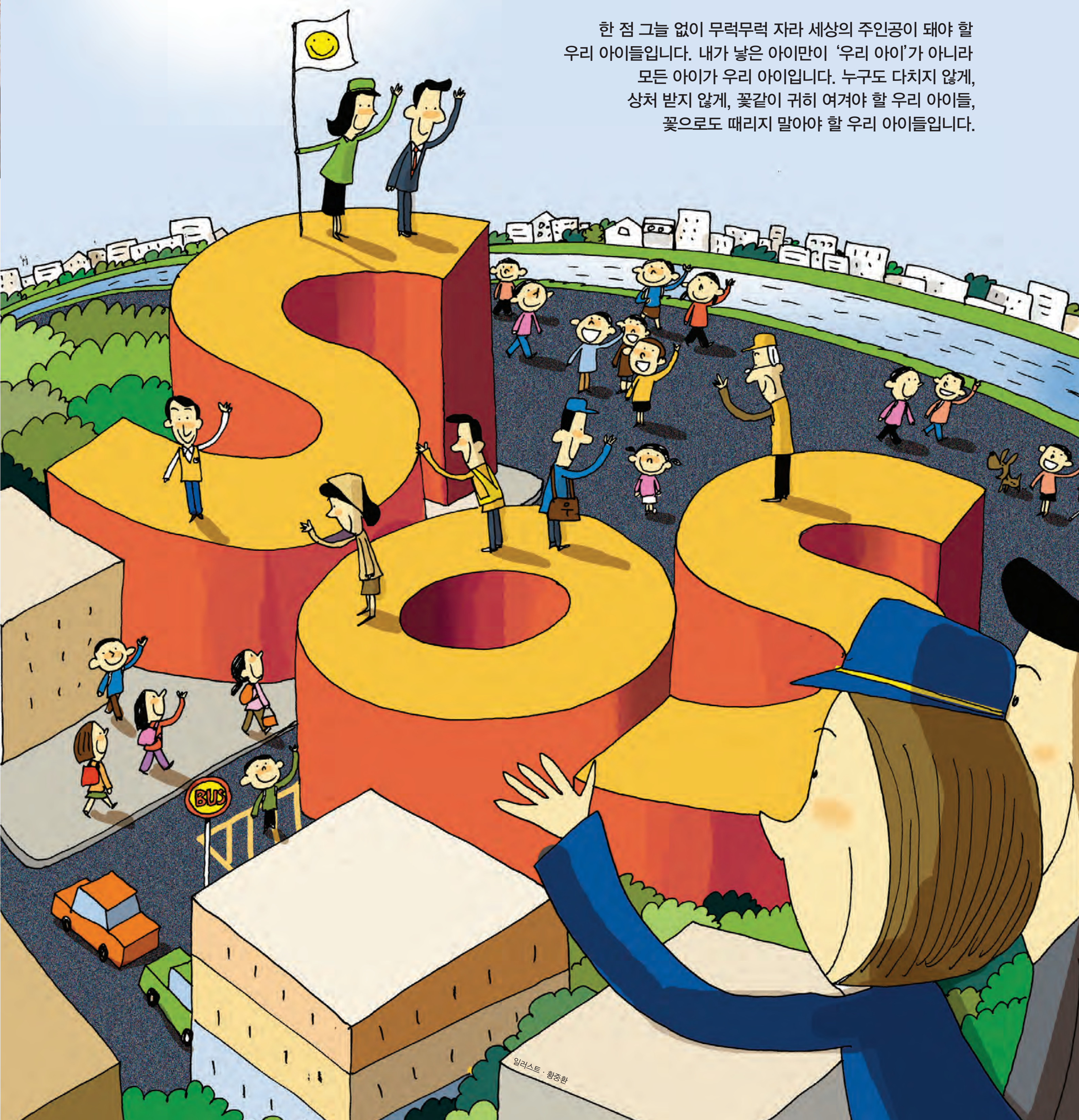
또한 중앙합동조사단에 현장재난관리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등을 포함시켜 피해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아DB



꽃으로도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한 점 그늘 없이 무럭무럭 자라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만이 ‘우리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상처 받지 않게, 꽃같이 귀히 여겨야 할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일러스트 · 황중환



조영철 기자

내 아이와 이웃 아이들을 위한 파수꾼인 마포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이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강신철 지구대장과 함께 어린이 지킴이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내 아이 안전, 엄마 아빠도 나섰다”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 특히 성범죄가 커다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나서는 엄마, 아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서는 부모들은 내 아이 하나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내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이 돼주며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동아DB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서울 영신초등학교 아버지순찰대원들이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동국 선수는 딸을 둔 아빠의 마음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용강지구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후 2시쯤이면 여경 복장과 흡사한 짙은 감청색 모자와 흰색 블라우스, 감청색 바지 차림의 어머니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마포경찰서 관내 6개 지구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마포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이다.

이들은 2인1조로 인근 초등학교 하굣길에서 아이의 안전 귀가를 돕고 주변 놀이터와 공원을 중심으로 방치된 아이는 없는지, 곤경에 처한 아이는 없는지 순찰을 돈다. 오후 9시 무렵까지 마포구 내 6개 지구에서 활동하는 마포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은 지구대별로 30명 내외, 마포구 내에서 모두 1백50여 명이 활동 중이다.

햇볕이 따가울 정도의 날씨였던 7월 15일 오후 용강지구대에서 만난 마포 어머니폴리스 안미자(45) 회장은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머니폴리스 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 구역 구석구석을 순찰한다"고 말했다.

어머니폴리스 활동으로 범죄 예방 · 불안감 해소 도움

회원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 어머니들도 있지만, 의외로 중고등학생 어머니들이 다수라고 한다.

"녹색어머니회 등 마포구의 초등학교 교내 어머니 조직을 기반으로 해 마포 어머니폴리스가 발족한 지 5년쯤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상태에서 어머니폴리스 활동을 시작했는데, 계속 활동하다 보니 지금은 내 아이가 중고생이 돼도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몇 년씩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 19세와 21세가 된 안 회장도 시간이 많아서 어머니폴리스를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회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시간대에 순찰을 돌 정도로 사명감이 대단하다. 처음에는 노랑 조끼를 입고 시작한 마포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은 지난해 제복으로 바꿔 입으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고 한다.

제복 입은 어머니들의 순찰 '예비 범죄자' 경각심 높여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입은 어머니들이 정해진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온 국민이 경악한 '조두순 사건'에 이어 지난 6월 초 발생한 '김수철 사건'까지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마포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의 존재감과 사명감은 여느 때보다 소중하다.

"경찰 이외에도 누군가 아이들을 위한 감시의 눈이 돼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같이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안 회장과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담당한 구역을 돌면서 우편물이 쌓여 누가 봐도 빈집인 듯하면 지구대에 신고를 해 빈집털이 같은 범죄를 예방한다. 불량 청소년이 모이기 쉬운 놀이터 주변의 어두운 가로등을 관할구청에 신고해 환하게 바뀌게 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솔직히 우리도 어두컴컴한 놀이터에서 술 마시



조영철 기자

"얘들아,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다.

고 담배 피우는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면 무섭다"며 "그럴 때는 우리끼리 나서지 않고 지구대에 신고해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크고 작은 사고를 막는다"고 고충도 털어놨다.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강신철 지구대장은 "요즘 하교시간에 초등학교를 가보면 여느 때보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경찰도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의 활동은 범죄 예방과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염리초교, 여름방학 방과 후 '코디맘폴리스' 운영

우리나라에서 '어머니폴리스'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은 서울 강남지역이다. 2003년 무렵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자 당시 박기륜 서울 강남경찰서장의 제안으로 강남경찰서 관할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남 어머니폴리스'가 결성됐다.

4백여 명의 어머니들이 어머니폴리스를 결성하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유니폼과 모자, 호루라기 등을 갖추고 아이들 하교시간에 학교와 동네 주변을 순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발대식을 갖고 어머니폴리스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후 어머니폴리스 활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경기, 강원 등 일부 도에서는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데다 아이들 통학 거리가 멀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보다 어머니폴리스 활동이 절실하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인 서울보다 더 큰 규모로 어머니폴리스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올해 50개 초등학교의 어머니 1천1백21명이 어머니폴리스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4월 창립돼 올해 3기째를 맞은 파주 어머니폴리스는 학교 주변을 비롯해 아파트단지 등지에서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매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2인1조로 순찰을 돌며 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있다.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박정남 순경은 "아무래도 도 지역은 대도시보다 인적이 드문 곳이 많다 보니 어머니들의 관심이 높아 관내 54개 초등학교 중 50개교의 어머니들이 파주 어머니폴리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 살배기 딸 쌍둥이 아빠인 이동국 선수는 여성가족부와 자신이 속한 팀이 펼치는 캠페인에 "취지가 좋은 데다 바로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여했다고 했다. 이 선수는 "아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더 중요하다"며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 지킴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고 전했다.

이렇게 조직화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당장 이번 여름방학 동안 '빈 시간'이 많아질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어머니들도 있다. 김수철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휴교일 방과후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하던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의 영향이 크다.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의 경우 7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방과후 교실 때문에 학교를 오갈 아이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코디맘폴리스'를 운영한다.

염리초교 이희자 교장은 "우리 학교 전교생이 1천30명인데 여름방학 동안 방과후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이 7백여 명으로 사실상 상당수 아이들이 하루 중 일정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며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 배움터 지킴이까지 이중 삼중으로 학교를 지켜도 혹시 있을지 모를 빈 곳과 시간 공백을 막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교내 어머니단체 회원들과 상의해 '코디맘폴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염리초교에서는 올 여름방학 동안 1백명가량의 어머니들이 한 달간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교문과 교실 등에서 아이들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아버지순찰대' 학교 주변 야간 순찰 · 방범활동 적극

어머니들만이 아니다. 아버지지킴이도 나섰다. 지난 6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에서는 '아버지순찰대'가 결성돼 매일 학교 주변에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버지순찰대원들은 회사원, 사업가, 군인, 종교인까지 각자 본업에 바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서 매주 월~토요일 오후 8~10시면 빠짐없이 순찰을 돌고 있다.

아버지순찰대원들은 경찰 마크가 새겨진 조끼와 모자, 벨트 등 제복을 갖춰 입고 '안전순찰'이라고 쓰인 완장을 차고 있다. 또 손에는 붉은 야광봉과 손전등 등을 갖고 다닌다. 활동한 지 한 달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학교 구석이나 놀이터에 모여들던 불량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전주 양지초등학교 아버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양지YP 그린지킴이단'을 조직해 학교 주변 유해매체 순찰활동을 벌이고 유해매체 관련 연수를 하는 등 자녀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지초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정한 'YP(Youth Patrol · 청소년스스로 지킴이)' 시범학교이기도 하다. YP는 교육과학부가 추천한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학교당국 그리고 지역사회가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자는 동아리 활동의 하나다.

충남 서산시의 서산여중에서도 최근 어린이와 여학생들에 대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자 '아버지서포터스' 구성에 나섰다. 서산여중은 지난 6월 24일 아버지서포터스 창단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고 7월 정식 창단식을 하기로 했다. 이들 아버지서포터스는 학교 주변 야간 순찰과 방범활동을 하며 내 딸, 이웃의 딸들을 위한 안전 지킴이 활동에 나선다.

이동국 선수, '아빠의 마음'으로 캠페인 참여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했던 '라이온킹' 이동국(전북 현대모터스FC) 선수도 7월 19~25일 MBC 라디오 '잠깐만' 캠페인에 출연해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세 살배기 딸 쌍둥이 아빠인 이 선수는 여성가족부와 자신이 속한 팀이 펼치는 캠페인에 "취지가 좋은 데다 바로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여했다고 한다.

이 선수는 캠페인을 통해 "아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더 중요하다"며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이 지킴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센터 최인섭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일으키는 성범죄 사건들은 급변하는 성문화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사회 현상의 하나"라면서 "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생각 때문에 성폭행뿐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노인들의 성추행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특히 어린 여성에 대해 '성적 환타지'를 품은 왜곡된 성 가치관을 지닌 성범죄자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미리 탐문을 해 자신이 지배하기 쉬운 대상자의 취약 시간대와 지점을 노린다"며 "이와 같은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CCTV와 같은 공적 통제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내 아이처럼 주변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서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유지하는 문화적 통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학교는 안전지대로, 부모는 안심지대로

성산초교 국내 두번째 '국제안전학교' 인증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지대로 거듭나고 있다. 외부인 출입 때 신원을 확인해 출입증을 착용토록 하고, 학부모들도 교직원과 힘을 모아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1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 배움터 지킴이 송우진 씨가 삼삼오오 재잘대며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맞는다. 등하교 시간에는 채광수, 김용옥 교감이 송 씨와 함께 3곳의 학교 출입구를 지킨다.

수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후에는 후문과 주차장은 닫고 정문만 열어둔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관할 지구대에서 32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 중인 송 씨는 정문에서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매시간 교내를 순찰한다.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성산초교에는 얼마 전까지 학교 울타리가 없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담을 없애고 24시간 개방하다 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나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 아침이면 어린이들이 술병과 담배꽁초를 치워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외부인 출입증 착용… 경찰관 · 전문강사 초청 안전교육

김진향 교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학교 담을 새로 설치하고 출입구를 정문과 후문 두 곳으로 줄였다"며 "요즘 학교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가워한다"고 말했다.

성산초교 곳곳에는 11대의 폐쇄회로 TV(CCTV)가 24시간 작동한다. 교무실 모니터를 통해서 정문 등 주요 네 지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당직실에는 16개 지점을 모니터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받은 서울 성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배움터 지킴이가 등교지도를 하고 있다.







성산초교 당직실에는 교내 16개 지점의 CCTV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요원이 있다.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는 신분 확인 후 출입증을 내주고 있다.

링하는 전담요원이 있다. 방과 후에는 당직기사가 학교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 구성된 '안전둥지회'가 교내와 학교 인근 골목길을 순찰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못지않게 안전교육도 철저하다. 연간 21시간의 학교안전 정규 수업 외에도 경찰관이나 전문강사 등을 초청해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학교안전 전도사 '에스 가이스(S-GUYS)'는 성산초교만의 안전 프로그램이다. 마포구보건소의 지원 아래 안전교육과 체험활동을 받은 60명의 S-GUYS 대원은 안전수첩과 카메라를 지급받아 교내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토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학교는 올해 6월 22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받았다. 세계에서는 27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수원시 정자초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상일초교 '안전 지킴이벨 설치' 법률안 대상 받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성산초교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전 가장초교, 대구 남동초교 등 많은 학교들이 외부 방문자에게 행정실에서 방문기록부를 작성토록 한 후 출입증을 내주고 있으며, 교직원들 역시 학생들에게 신분을 정확히 알리려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면 교사에게 신고하도록 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대구 대봉초교에서는 등굣길 안전을 위해 오전 8시 10분부터 20분간 일제히 등교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 도서관을 안전지대(Safe Zone)로 지정해 일찍 등교하거나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 거학초교에서도 운영위원과 학부모 임원으로 이뤄진 하교 도우미와 연제구 복지회관 노인회 안전 도우미들이 학생들의 하굣길을 돕고 있다.

한편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어린이들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서울 상일초교 어린이 국회연구회는 7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내 안전 지킴이벨 설치 의무화' 법률안을 발의해 우수 법안 대상을 받았다.

학교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위험에 처하는 순간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 어린이가 안전 지킴이벨을 누르면 파출소나 지구대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표 6학년 이주빈 군은 "많은 어린이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채택돼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나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광명시, 전국 최초 수위실 부활

관내 23개 초교 6억2천만원 지원

과거 초중고교들은 교내에 수위실을 두고 경비직원을 배치해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이와 함께 3, 4년 전부터는 학교 담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공원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요즘 많은 학교에는 담도 수위실도 없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쉬워지면서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광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수위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6억2천1백만원을 지원해 '배움터 지킴이실'을 설치하고, 퇴직 교사나 경찰관 출신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한 것.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안전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CCTV 같은 보안장치보다 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움터 지킴이실은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끝내고 2학기부터 운영된다.

야쿠르트 아줌마·우체국 집배원·모범택시 운전기사

우리 동네 '어린이 수호천사' 떴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야쿠르트 아줌마, 우체국 집배원, 아동안전 지킴이집 업주, 경로당 어르신 등이 무보수로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정철 기자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찾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 5월 2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야쿠르트 판매 활동을 하는 이효숙(56) 씨는 한 남자가 초등학생 여자아이 두 명에게 다가가 "1만원을 줄 테니 따라와라"고 유인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남자는 전과 24범으로 밝혀져 해당 어린이들의 부모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찔한 위기를 넘긴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씨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하며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날 초등학생 둘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15일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피의자 검거를 도운 이 씨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국야쿠르트·지방경찰청,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가 잇따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쿠르트 아줌마 등 지역사회 '아동안전 수호천사'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아동안전

수호천사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아동안전 수호천사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며 위험에 처했거나 길 잃은 어린이를 경찰관이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내에만도 1백76개 야쿠르트 매장이 있고 4천여 명의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무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에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 보안업체인 ADT캡스도 지난해부터 전국 90개 지사망을 활용해 각 지역본부별로 어린이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포하고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과 취약지구를 순찰하는 등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체국 집배원들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나섰다.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약을 맺어 우체국은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집배원은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활동하기로 한 것.

충북도, 7월부터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 도입

우체국 오토바이와 차량 등에는 수호천사 스티커를 붙이고 집배원들은 배지를 부착한다. 이들은 우편업무 수행 중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발견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임시로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우체국 전화와 집배원의 휴대전화에는 관내 지구대나 파출소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경찰과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수 경북체신청장은 "지역사회에 친화적이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우체국과 집배원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택시 운전기사들도 '달리는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태권도 사범들은 '태권V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하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97개 학교에서 가까운 경로당 1백여 곳이 참여하는 지역순찰 봉사대가 2인1조로 순찰조를 편성해 학교 주변, 놀이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충북도는 등하굣길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보행안전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이 주축이 된 보행안전 도우미는 등하굣길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주 통학로의 지정된 몇몇 장소까지 데려다줌으로써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키고 있다. G

글·이혜련 기자

아동안전 지킴이집

문구점·약국 등 전국 2만6천7백여 곳 지정



연합

인천 계양구에서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영진(가명·59) 씨는 지난 5월 31일 하교하는 여자 어린이 세 명을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추행을 하는 남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굣길을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막은 것이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2008년 4월 처음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75명의 성추행범을 검거했고, 1천8백81명의 아동 실종을 예방했으며, 1천9백56명의 아동을 보호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학교, 통학로, 놀이터, 공원 주변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을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 것이다. 6월 말 현재 전국에 2만6천7백28개가 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 업주의 휴대전화에 관할 지구대와 112 번호를 단축키로 입력해 경찰관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이 월 1회 이상 방문해 위험상황을 목격했을 때나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막상 위기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아동안전 지킴이집 앞에는 곰돌이 인형 모양의 스탠드 로고가 있고, 출입문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역 경찰서와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경찰청이 전국 20개 초등학교 1천2백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퍼센트의 아이들이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10.8퍼센트만이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리기 위해 곰돌이 인형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상영하고, 아동안전 지킴이집 캐릭터 모양의 저금통, 색칠놀이 공책, 알림장을 배포하는 등 아동안전 지킴이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경숙 경위는 "아동보호는 경찰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며 "무보수로 동네 아이들을 지키는 아동안전 지킴이집 업주들은 진정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첨단 IT로 범죄 예방도 스마트하게

GPS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안전 서비스 보급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고 안전하게 있는지를 '선량한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민간업체들은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위치추적 기술, 스마트폰 보안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어린이가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 어린이가 교문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도림초등학교 학부모 임현경 씨는 요즘 '안심 알리미' 단말기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 그는 "예전에는 딸 아이의 등하굣길에 휴대전화로 서너 번이나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이가 가방에 단말기를 매달고 다니면서부터는 내 휴대전화에 등하굣길에 각각 세 번 정도 위치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아이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위급상황도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도림초교는 지난 5월부터 학생들이 통학로 1킬로미터 주변 20여 곳에 설정한 지점을 지날 때마다 위치정보를 학부모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안심 알리미 단말기를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무료로 보급했다.

안심 알리미는 초등학생의 위치정보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부터 저소득층 비율이 높거나 어린이 대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등의 40개 초등학교에서 도입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아이들이 안심 알리미 전용 단말기를 갖고 다니면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등하교 상황 외에도 방학기간 어린이의 주요 이동 지점을 알려준다. 단말기와 이용료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무료다. 고학년이 사용할 때 월 이용료는 5천원 선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다.

초등학교 1천7백24개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아이가 단말기를 갖고 학교와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위치추적 중계기 근처를 지나가면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한다. 또 긴급상황에서는 어린이가 이 단말기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삐' 하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비상상황이 생겼다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전송해준다. 또 아이의 하루 이동경로를 단말기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러스트 · 남동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말까지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시행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의 30퍼센트인 1천7백24개교로 늘린다. 또 방과후 학교에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통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90퍼센트 이상이 인터넷에서 연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터넷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을 할 경우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보급하고 있다.

유스 키퍼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경광등 모양의 신고 전용 아이콘이 생성된다. 인터넷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바로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증거 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로 즉각 접수된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신영숙 경감은 "유스 키퍼를 통해 지금까지 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청소년들이 어른의 아이디를 도용해 장난삼아 신고하는 등 범죄 구성요건이 미흡해 처벌에까지 이른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유스 키퍼가 널리 보급되면 인터넷에서 성매수 유인 행위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폰에서 긴급호출 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안기능은 더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전화벨이 울리고 상대방과 통화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더 긴급할 경우 버튼을 누르거나 또다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112 또는 지정 연락처로 긴급전화가 걸려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보안업체 에스원이 선보인 스마트폰 기반의 보안 서비스 '지니콜'의 기능이다.

에스원 홍보팀 배홍건 차장은 "마치 어디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전화벨이 울리고 가상 통화 음성이 들리면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이 위축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용 신변안전 애플리케이션도 등장

지니콜 애플리케이션은 올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7월 14일 현재까지 2만2천6백51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보안업체 KT텔레캅도 지난 5월 스마트폰 기반의 신변안전 애플리케이션 '케어콜(CareCall)'을 선보였다. 케어콜은 귀가 예측 시각을 스마트폰에 설정하면 그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을 때 미리 지정한 연락처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지니콜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정된 연락처로 위치정보를 보내고, 자동으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케어콜은 전자 태그(RFID)를 활용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특정장소에 근접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지니콜, 케어콜 등 이들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보안업체 ADT캡스는 'ADT 서치미'와 'ADT 블랙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ADT 서치미는 모바일로 보낸 위험신호를 감지하여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DT 블랙박스는 폐쇄회로 TV(CCTV)로 찍은 영상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아이의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보안 서비스다. G

글 · 최은숙 기자

유스 키퍼 다운로드 · 각 포털사이트 자료실



에스원의 지니콜(왼쪽), KT텔레캅의 케어콜(오른쪽)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이다.

“엄마처럼 챙겨줍니다”

나홀로 아동 신변 보호·정서적 안정 위한 프로그램 마련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임된 아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알차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일러스트 · 김영민

"이젠 학교 수업이 끝나도 무섭지 않아요."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영후(가명 · 11)는 수업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간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다. 예전에는 방과 후에 빈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어두워질 때까지 이곳저곳을 배회했다. 그러다 나쁜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좋지 않은 일들도 겪었다.

학교에선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릴까봐 소심하게 지냈다. 영후는 늘 무섭고 외로웠다.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싶고 멀리 놀이동산으로 놀러가고 싶었지만 그런 작은 소망도 영후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소일거리로 늘 바쁜 할머니와 할아버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아빠를 떠올리면 자꾸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영후가 지난해 가을부터 달라졌다. 한낮에도 컴컴한 집 안이 싫다며 밖에서만 놀던 영후가 방과 후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진 돌봄 선생님 이지현(가명 · 40) 씨 때문이다.

이 씨는 매주 평일 3시간 반 정도 영후의 조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영후를 돌본다. 숙제를 도와주고, 같이 TV를 보고, 영후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저녁을 마련한다. 영후가 감기몸살로 심하게 아픈 날은 병원에도 같이 가고 병간호도 해준다.

이렇게 10개월간 이 씨와 함께한 영후는 또래 친구들처럼 말수도 많아지고 개구쟁이 같은 웃음을 되찾았다. 처음 이 씨를 만날 때 "꿈이 없다"며 말끝을 흐리던 영후는 이젠 "화가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어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는 꿈 많은 소년이 됐다.

전체 어린이 7명 중 1명 돌봐주는 사람 없어

이 씨는 "소외된 나홀로 아동을 돌보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비롯해 정서적인 문제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나홀로 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나홀로 아동 수는 1백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공백 상태의 아동은 1백2만5천6백명으로 전체 어린이 7명 중 한 명꼴이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방임아동 사례도 2천25건으로 2001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나홀로 아동이 증가하는 까닭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 형태의 변화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인 하굣길,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 문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어린이 대상 성범죄 사건 중 67.2퍼센트가 하교시간인 오후 3, 4시에 발생했다.

특히 먹고살기 바빠 아이 문제에 소홀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위험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시군구 38곳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부모 1만3백81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문제점으로 '방과 후 방치'가 1위로 꼽힌 것만 봐도 그렇다. 이들 자녀가 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부모, 조부모 순이었지만 형제와 지낸다는 비율이 13.7퍼센트,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10퍼센트나 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나홀로 아동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나홀로 아동의 문제를 아이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로 확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기관의 중앙센터는 지역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돌봄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면 가까운 거주지역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드림스타트

아이들 꿈 지켜드려요!

"엄마처럼 나를 챙겨주는 곳이에요." "슬픈 날이 있어도 드림스타트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드림스타트 센터를 이용한 초등학생들이 남긴 메모들이다. 2007년 시군구별 빈곤아동 밀집지역 16곳에 마련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백 곳으로 늘어날 드림스타트 센터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켜주는 곳이다. 만 12세 이하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교육 등 총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아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준다.



나비뜰지역아동센터

나홀로 아동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은 전남 함평 나비뜰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물놀이 체험 모습.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내 16곳의 무한돌봄센터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두 남동생을 돌보며 힘들게 지내오다 충북 청주시 드림스타트를 이용한 초등학교 6학년 보민(가명·13)이의 경우 정신과 상담, 방과후 교실 연계, 아버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웃음 공주'로 불릴 만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드림스타트 센터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지역 내 보건소, 사회복지관,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기 남양주시 드림스타트 '공부의 신' 프로젝트, 서울 중랑구 드림스타트 '아하! 레고' 프로젝트처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나홀로 아동을 돕고 있다.

드림스타트 ☎ 02-2250-3175 dreamstart.kr

지역아동센터

안전보호·정서 함양의 기회 얻어요!

'나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남 함평군 함평읍은 요즘 늘어나는 조손(祖孫)가정 아이들로 고민이 많다.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부모가 있는 이곳으로 자녀들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사일로 바쁘고 연세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기는 쉽지 않다.

나비뜰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방치된 함평초등학교와 기산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평일을 비롯해 토요일까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이 중 아이들이 즐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는 사물놀이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렇듯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얻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천4백74곳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수는 9만7천9백26명에 이른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 의료 지원뿐 아니라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한 어린이 학습지도도 하고 있다.

지역아동정보센터 ☎ 02-365-1264 icareinfo.info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 아동·가정 상담과 교육 지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전국 1백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 아동과 위기 가족 전체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나홀로 아동의 돌봄 공백 상태를 줄이기 위해 아이 돌보미팀을 설치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 집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가족 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모두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보듬사업도 시작했다. 여기엔 자활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현재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와 금양호 희생자의 가족 등 10가족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02-3140-2200 hhfc.familynet.or.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양한 체험기회·안전한 귀가지도 도와요!

방과 후 부모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초등학생을 돌보는 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공부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 1백61개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등에서 6천5백3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활동 이후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이 직접 귀가지도를 돕거나 부모에게 청소년의 귀가를 알리는 문자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02-6430-0908 youthacademy.or.kr

미래 희망 돌봄 사업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아이 돌봐줘요!

이 사업은 중앙자활센터가 KT&G,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지난해 9월 처음 시작됐다. 방과 후 부모 없이 방치된 빈곤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돌봐준다.

최저생계비 1백50퍼센트 이하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가 그 대상으로 1백20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이 돌봄 선생님이 돼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아이 돌봄 선생님은 전국 35개 지역자활센터당 10명씩 총 3백50명이 활동하고 있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 외에도 가족 기능의 회복과 어린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자존감 향상 등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8월 말 1기 서비스가 종료되고 올 가을부터 2기가 시작된다.

중앙자활센터 ☎ 02-415-6924 blog.naver.com/cssf35

무한돌봄센터

가족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

경기도는 저소득층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는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경기도 내 16곳에서 운영 중이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가족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나홀로 아동의 경우 대부분 가족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에게 맞는 학습 및 상담, 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유태인 사회복지사는 "과천시 무한돌봄센터로 들어온 70~80곳의 위기 가정 의뢰 내용을 토대로 나홀로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G

경기 무한돌봄센터 ☎ 031-120 moohan.or.kr

글 · 김민지 기자

미래 희망 돌봄 사업은 나홀로 아동과 돌봄 선생님을 1 대 1로 연계한다.
단순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학습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아DB

성폭력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학교안전망 구축 · 성폭력범 관리 강화 등 예방대책 마련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하며, 각종 범죄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에 대해서도 세심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아동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생각하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이다'라는 이 사자성어가 절로 떠오른다. 한창 꿈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나이에 끔찍한 변을 당한 아이와 그 가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다른 학부모와 아이들도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1백99개 성폭력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3만3천6백59명 중 유아(7세 미만)가 9백44명, 어린이(7세 이상~13세 미만)가 4천3백75명으로 유아와 어린이 피해자가 전체의 15.8퍼센트에 달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삶을 어지럽히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고, 아이들과 여성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 4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세웠다. 지난해 10월엔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9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점검단을 운영해 가해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안까지 들어와 아이를 유인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른바 '나홀로 아동'을 노린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층 강력하고 촘촘한 아동 안전망 구축이 절실해졌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관계부처는 지난 6월 22일 합동으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안전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정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조영철 기자



인천 중앙초등학교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피해 아동·가족 건강한 삶 회복 위한 '가족보듬사업' 확대

부모나 친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성폭행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보호망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여성 전문상담원이 아이와 1대1 결연을 맺고 가족 역할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전문상담원은 주 2회 이상 방문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폭력 피해 예방 등에 힘쓰게 된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가족보듬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보듬사업은 성폭력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심리치료,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끝나는 2학기부터는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안전재단,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10개 단체와 협력해 한부모



일러스트 · 박지영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크게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범위를 넓혔다.



성범죄 전과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 시연 장면.

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4백5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 지킴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전문 자원봉사자 등을 안전 지킴이로 선발해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충북, 경북, 경남, 인천 등 8개 지역 10개 단체에서 대상 아동 선정과 안전 지킴이 모집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2월 경우회, 대한노인회와 4자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을 펼쳐왔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퇴직 경찰관과 노인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선발해 각 경찰서 관내에 배치하고 학교 주변과 놀이터, 공원 등을 돌며 실종 예방, 비행청소년 선도 등 아동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한 것.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길을 잃은 어린이 2백42명의 실종을 막는 등 총 2만8천여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범죄예방과 아동보호 활동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한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규모는 지난해 1백1개 경찰서, 1천10명에서 올해 1백74개 경찰서, 1천7백40명으로 늘었다.

안심 알리미·워킹 스쿨버스 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일선 학교와 협력해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종일돌봄교실'도 어린이 보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에서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규수업+방과 후 활동+가정 돌봄'의 세 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돌봄교실은 지난해 3백46개에서 올해 6백 개로 늘어난다.

외부인과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더욱 두껍고 촘촘해진다. 정부는 먼저 학생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전국 1천여 개 학교를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선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경비실을 구축하는 등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교직원 신분증 패용, 외부인 방문증 착용 등 학교의 출입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학교 주변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폐쇄회로 TV(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지자체 2백30곳에 1천1백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두던 배움터 지킴이도 모든 초등학교에 3백65일 방과후 학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천44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배움터 지킴이는 교문에 새롭게 설치되는 안전등대(수위실)에서 상주하며 교내외 순시 순찰, 학생 선도 및 보호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는 것이 주된 임무다.

학부모에 대한 배려도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더욱 널리 보급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결석 상황도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도 도입됐다. 워킹 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이끄는 집단 보행 시스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70퍼센트 줄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동아DB



정부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학교 주변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일어나기 쉬운 각종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배우고, 교통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뿐 아니라 살인범과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부착 대상 확대 등 처벌 강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 크게 확대됐다. 법 개정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범위를 넓혀 확고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10년에서 30년까지로 늘린 대목도 눈에 띈다. 이는 법률 공포일인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예외 없이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이 제한된다. 또 주거 이전이나 국내외 여행도 보호관찰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출소자(3천7백39명), 출소 임박자(4백46명), 출소 예정자(2천7백31명) 등 소급 적용 검토 대상 총 6천9백16명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 요건을 심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질적,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회 방위 차원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로, 지난 6월 29일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각 부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얘들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어린이·청소년 상황별 범죄 예방법… ‘역할극’ 반복 중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친절히 알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 부모가 반드시 알아두고 평소 자녀에게 숙지시켜야 할 범죄 예방법을 상황별로 살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삼정초등학교 김혜순 보건교사가 어린이들과 가면을 쓰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역할극을 하고 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아저씨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부모님이 계실 때 다시 오라고 해야 합니다.”

7월 2일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삼정초등학교 1학년 1반의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 이 학교 김혜순 보건교사가 동영상과 학습지, 상황극 등을 활용해 올바른 성폭력 예방법을 설명하자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최근 이른바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대한 인식이 없고 어른을 의심 없이 대하는 어린이들의 인지 수준에 맞는 성교육이 절실하다”면서 가장 좋은 성교육 방법으로 ‘역할극’을 꼽는다. 역할극은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아이가 직접 참여해 해답을 깨우치는 방식이어서 성폭력에 대한 경계의식과 대처능력을 키우기에 좋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인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이 같은 대처능력은 실제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니만큼 엄마가 아이와 함께 역할극을 하며 평소에 연습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을 당했을 때 그 즉시 부모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요령이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구도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현관문을 열고 이야기해야 할 경우 체인빗장을 걸고 말하며, 평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확실한 용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빈집에 들어갈 때

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주위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사방을 살핀 다음 큰 소리로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한 후 들어간다. 위급상황이 생기면 급히 연락할 수 있는 곳(여성 긴급전화 1366,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의 전화번호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둔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주위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르쳐주더라도 함께 가지는 말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노인인 경우 아이의 선행심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짐을 들어달라며 함께 가자고 할 때는 유괴의 위험이 있으니 "다른 어른의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말한다.



차량 안에서 길을 물을 때 상대방이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자동차 옆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도로나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옆을 지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차에 탄 사람이 이름을 부르거나 부모님 친구라고 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에 태우려고 잡아끌 땐 "도와주세요"나 "엄마"하고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난다.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내 몸을 만지려 할 때 큰 소리로 "싫어요, 안 돼요"라고 명확히 말하고 피한다.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되도록 빨리 도망친다.

모르는 사람이 쫓아올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도망친다. 이를테면 아동안전 지킴이집, 슈퍼마켓, 약국, 문구점 등이 그런 곳이다. 비상용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며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상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주위를 서성이고 있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는 같이 타지 않는다. 수상하고 낯선 사람과 단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 즉시 내린다.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하면서 상대방이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 위급할 때는 엘리베이터 안의 비상벨을 누른다.

외출할 때 부모나 가족에게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를 알려야 한다. 급할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밖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이용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다. 놀이터나 골목에서 혼자 배회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므로 될 수 있으면 어른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일러스트 · 이우정

우리 아이 안전네트워크

우리 아이 지키기 forchild.moge.go.kr	Safe Home Start www.safehome.or.kr
꿈나무 안전세상 u.seoul.go.kr	어린이안전넷 www.isafe.go.kr

경보기 · 호루라기 등 어린이 호신용품 인기

아동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호신용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용 호신용품으로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보기, 호루라기, 위치추적 장치 등이 인기다.

경보기 중에서는 휴대전화 고리로 사용하다 날개 부분을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과 가방이나 휴대전화에 달고 다니다 줄을 당기면 강력한 경보음을 내는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호루라기는 주로 목에 걸고 다니며 사용하는데,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과 경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전자호루라기가 있다.

보호자의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아이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도 선호도가 높다. SOS 호출 버튼을 누르면 미리 설정된 번호로 긴급메시지와 현재 있는 곳의 지도를 전송할 수 있는 제품과 경보음을 통해 아이와의 거리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제품이 대표적이다.


조영철 기자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상담과 의료·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네 잘못이 아니란다"

해바라기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 전담소 설치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 징후가 보인다면 당황하지 말고 발 빠르게 대처하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따라 아이의 피해 회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른 아동 성폭력 대처법과 이용 가능한 기관들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경기도에 사는 주부 오숙현(가명·44) 씨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며칠 전 아들 지훈(가명·8)이와 딸 예나(가명·5)가 놀이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일 때문이다. 평소 오 씨는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도록 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늦지 않은 오후 시간이라 안심했다. 그런데 사건은 뜻하지 않게 터졌다. 소변을 참지 못한 예나가 놀이터 근처 으슥한 곳으로 가자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따라나선 것이다. 지훈이는 모르는 형이 동생에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너무 놀라서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집 현관 앞에서 울음범벅이 된 아이들을 본 오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어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결국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아동 성폭력은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 해바라기아동센터에는 2백5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1퍼센트가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다. 피해 어린이는 만 7세 이하 유아가 40퍼센트, 만 8세부터 13세 미만 초등학생이 42퍼센트로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어린이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은 빈번히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아이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부모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때의 빠른 대처가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기관에 문의해 상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차분한 태도로 아이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일단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강조한 뒤 "지금의 상황은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재차 말해준다.

경기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피해 상담 접수를 맡고 있는 김진(42) 간호사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의 신체적 부상이 클 경우 피해 발생 48~72시간 이내 입은 옷 그대로 몸을 씻기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모 초기 대응 후 전문가 조언·프로그램 따라 행동해야

이처럼 성폭력 의심 증거를 보존하는 일은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의 체모, 흉기 등 증거물품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성폭력 피해 현장은 수사를 위해 훼손하지 않는다.

부모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마쳤다면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의 전문가 조언과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한다. 현재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어린이와 가족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해 10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국에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들이 마련돼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의료, 법적 지원을 비롯해 피해 어린이와 부모에게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17개소가 문을 연 원스톱지원센터는 어린이와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병원 안에 자리해 긴급상황 시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전국 해바라기아동센터

센터명	전화	인터넷 주소
서울	02-3274-1375	www.child1375.or.kr
대구·경북	053-421-1375	www.csart.or.kr
광주·전남	062-232-1375	www.forchild.or.kr
경기	031-708-1375	www.sunflower1375.or.kr
전북	063-246-1375	www.jbsunflower.or.kr
인천	032-423-1375	www.sunflowericn.or.kr
강원	033-252-1375	www.childsaver.or.kr
충청	043-857-1375	www.1375.or.kr
경남	055-754-1375	www.savechild.or.kr
부산	051-244-1375	www.child4u.or.kr

부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함.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나쁜 일 당했다고 쉬쉬 숨기지 마세요"


조영철 기자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신의진(46) 교수는 어린이 성폭력 상담 및 치료 전문가다. 2004년 국내 최초의 성폭력 피해 어린이 치료 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을 주도했고, 2008년 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 '나영이'의 주치의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아동 성폭력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 제7회 서울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신 교수에게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처 관련 노하우를 들었다.

최근 아동 성폭력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소득·방임 아동이 늘어나면 성폭력 사건도 당연히 증가한다. 튼튼하고 건강한 가족 울타리에서 아이들을 키워야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가정환경이 지속된다면 방임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아동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의 안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아이의 인성교육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면 부모는 일단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절대 화내지 않는다고 안심시킨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건 금물이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해당기관에 문의한 뒤 아이의 상태 그대로 아동 성폭력 전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완벽한 치유가 가능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치유 여부의 핵심은 가정환경의 변화에 달렸다. 여전히 안전이 의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든지,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든지,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이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나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만약 아이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말했다면 절대 가해자 대하듯 다루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쉬쉬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벌겋게 달아오른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다. 당시는 힘들더라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해 정부나 해당기관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피해 어린이에게 반복되는 진술을 시키거나 증거 채취 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좋지 못한 관례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6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경기 포천시 사과농장에서 사과꽃 솎기와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

농촌 일손 도우며 '반성의 땀방울'

"사회봉사 통해 땅의 정직함 · 노동의 소중함 배웠다"

일당 10만원을 줘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농번기에 사회봉사자들의 일손은 '천군만마'다.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3백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농촌 일손 돕기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경기 성남시 태평작목반 농민들의 밭에서는 진회색 조끼를 입은 일꾼 20여 명이 목에 두른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으며 풀을 뽑았다. 잠시 후 밭주인 석상운(65) 작목반장은 일꾼들을 나무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시원한 수박을 권했다.

원래 무더운 여름날 새참으로는 얼음 동동 뜬 막걸리가 제격이지만 이들에겐 절대금지다. 이들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있는 범법자들. 주로 음주운전이나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벌금 대체 사회봉사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3백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노역장 유치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예년에도 사회봉사 대상자 중 일부가 농촌 일손 돕기를 했지만, 올해는 농촌에 더 많은 일손을 보태고 있다. '농촌을 살리자'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와 농협이 지난 4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봉사 대상자 일일 평균 1천명 농촌 일 도와

지난 5월 경기 화성시 금당마을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을 열고 첫 농촌봉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대상자들(하루 평균 약 1천명, 모두 3만5천여 명)이 농촌 일손을 도왔다.

법무부는 올해에만 사회봉사 대상자 20만명을 농촌 일손 돕기 인력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농촌의 성인 남성

평균일당(4만3천원)으로 환산하면 연 86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법무부 보호관찰과 이동준 계장은 말한다.

이모(35) 씨는 음주운전으로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받아 이날 태평작목반 밭에서 일했다. 몸집이 큰 편이라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거나 허리를 숙여 잡초를 솎아내는 일이 힘들어 보이는 이 씨는 "땅의 정직함과 노동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1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경기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발대식'을 연 후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장 등과 함께 모심기를 하고 있다.

"농촌에서 하루를 보내며 남은 봉사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듯해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봉사로 대신하는 게 당연한데도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뵈니 행복해집니다."

農心 보듬는 사회봉사로 농촌 돕고 보람 느껴

태평작목반의 석 반장도 기쁘기는 마찬가지다.

"일당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꾼을 구할 수 없어 농작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정말 허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열 명, 스무 명 한꺼번에 와서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제 살 것 같네요. 처음에는 범법자라고 해서 조금 겁도 났는데, 막상 함께 일해보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보호관찰소에서도 감독자가 나오니 든든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3천2백68명을 보내 비닐하우스 설치 및 제초작업, 해충 방지용 과일 봉지 씌우기 등에 일손을 지원했다. 주로 고령자와 저소득층 농가를 지원하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들이 쇄도하고 있다.

배 농사를 짓는 김무근(48·남양주시 지금동) 씨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데다 인건비가 비싸 일꾼을 구하지 못해 막막했는데, 때마침 법무부와 농협의 도움을 받아 배꽃 솎기 등 과수 일을 마칠 수 있었다"며 "돈 내고 자기 잘못을 잊어버리는 사람보다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르면서 반성하는 사람들이라 더욱 잘해주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배 농장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한 강모(45) 씨는 "무더운 날씨에다 농사일이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농민들이 이런 고된 일을 평생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농산물 하나하나에 담긴 땀과 수고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부모가 떠올라 가슴이 찡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농협이 양해각서를 맺은 후 바빠진 이들이 또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다. 감독자의 자격으로 농촌에 가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일.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몸살을 앓기도 하고, 야근을 하며 사무도 처리해야 하니 말 그대로 '주경야근'이다.

"물론 힘들죠.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밀린 일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농민들이 봉사자들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워할 때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성남보호관찰소 정영환(32) 주임의 이야기다. 서울보호관찰소 정만영(53) 사회봉사 집행팀장은 "농촌 지원 사회봉사는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다. 사회봉사자들에게도 다른 봉사 분야보다 봉사를 마친 후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월 11일 현장을 찾았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 금당마을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모심기를 함께 한 이 장관은 "농심(農心)을 보듬는 사회봉사는 농촌도 돕고,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도 보람을 갖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를 발굴하고, 더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농한기에는 노후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보수하거나 마을길 청소, 집수리 등으로 농촌 사회봉사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농수로와 도로 정비, 축사 복구, 겨울철에는 폭우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시기에 맞는 사회봉사 활동을 도입하기로 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신청 및 문의 · 각 지역 단위농협 지도계, 법무부 보호관찰과 ☎ 02-2110-3583 www.moj.go.kr

서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15개 지소 추가 증설·이동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법으로써 국민을 돕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 농어촌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곳에 지소를 세우고 올해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이동법률상담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7월 8일 경기 가평지소 개소식 날 선보인 이동법률상담버스.
사진은 이동법률상담버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이 돈은 제게 피 같은 돈입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수십 년째 과수업을 해온 홍득수(가명·52)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월 초 이순자(가명·40) 씨에게 사과 8박스를 24만원에 팔았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 홍 씨는 억울하고 답답했다. 그러나 소액이어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니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홍 씨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가 개소됐다는 소식이었다. 자신과 같이 억울한 농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이야기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안고 그곳을 방문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홍 씨의 딱한 사연을 듣고 비록 소액이지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홍 씨는 "법에 무지해 적은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도와 법의 '정당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올해 창설 23주년을 맞이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6월 정홍원(66)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민·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 전액 무료 법적 지원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부를 비롯해 전국 시군 법원이 있는 지역에 18개 지부, 39개 출장소를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들 지역 외에도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해부터 5년간 67개 지소를 개소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강원 동해지소 등 15개 지소가 세워졌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5개 지소에서 1천3백13건의 법률구조와 7만6천2백36건의 법률상담 실적





◀◀35인승 버스 내부를 개조한 이동법률상담버스는 상담 부스 및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전담 상담원들이 신속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개 지소를 열었다. 이날 가평지소 개소를 기념해 정홍원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을 올려 특히 법에 취약한 농어촌,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강원 양구지소 등 15개 지소를 추가로 마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포함해 소액사건심판법(2천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임금체불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는 전액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 곳곳 방문해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전국 지소에서 접수된 법률상담 내용은 주로 소액 사기나 임금체불, 보이스피싱 등이 대부분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뜯기거나 주변 이웃에게 돈이나 땅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 등 억울하고 분하지만 사건 해결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사건들이다. 지소는 이런 고민거리를 세심하게 상담해 가까운 출장소나 지부로 전달,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준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전국에 67개 지소를 다 설치한다고 해도 여전히 법률 사각지대는 남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7월 8일 경기 가평지소 개소식 날,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구현할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출범시켰다. 농어촌, 산간 벽지 등 전국 곳곳을 방문해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동법률상담버스에는 공단 직원 2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사건 접수부터 기록 송부 등 신속하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해 전국 각지에 숨어 있는 국민들의 작은 불편사항들을 속 시원히 처리해줄 전망이다.

이동법률상담버스는 공식 출범 전인 지난 6월 15일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 농협지부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이때 25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법률 강연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런 긍정적 반응을 토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매월 방문지역에 대한 이동거리 및 방문지역 법률상담 수요를 사전 조사해 이동법률상담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문홍 홍보실장은 "이동법률상담버스는 지역 축제, 다문화가정 대상 법률 강연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를 뽑아서 소외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며 "30개 지소 운영과 더불어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klac.or.kr

2010년 이동법률상담버스 일정표

월	권역별 순회 방문		방문 목적과 대상
	권역(지부)	방문 예정 지역	
7	수도권, 강원, 호남(의정부, 춘천, 전주)	철원, 포천, 가평, 양구, 인제, 화천, 무주, 진안	이동법률상담차량 출범식, 복지시설, 지역축제
8	충청, 영남(청주, 대구)	괴산, 진천, 음성, 울진, 청송, 영양	시설연계, 해수욕장 등 계절특성 연계
9	호남(광주, 전주)	곡성, 순창, 완도, 진도, 강진	유관기관 연계, 지역축제 연계
10	영남, 호남, 충청(대구, 창원, 대전, 청주)	문경, 예천, 영주, 사천, 고성, 예산, 보은	복지시설 연계, 지역축제 연계, 유관기관 연계
11	영남, 호남(창원, 광주)	함양, 산청, 고흥, 담양	유관기관 연계
12	충청, 영남(대전, 청주, 창원)	보령, 옥천, 하동, 남해	시설 연계

*현지 사정, 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슈퍼주니어가
'슈퍼 주니어' 키운다

사회지도층-저소득층 청소년 1 대 1 연결 멘터 봉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생활이 어려워 꿈마저 꿀 수 없다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휴먼네트워크'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일대일로 연결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는 지난 5월부터 저소득층 자녀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사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휴먼네트워크'의 홍보대사가 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돼서 우리 멤버들 모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에게 가난이 대물림돼 계속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7만3천명이나 되고 한부모가정이나 조손(祖孫)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청소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휴먼네트워크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멘터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물질적 빈곤을 겪을 뿐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에서도 불리한 처지라 개인적 역량을 키우기 어렵지요. 휴먼네트워크는 정부가 물질적 지원만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빈곤가정 청소년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새로운 나눔문화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 아이들과 멘터 대 멘티로 인연을 맺고 아이들이 가능성과 재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후견·자활·글로벌넷 등 6개 분야 사업 확대

취약가정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인격적 지원을 제공하는 멘터링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BBBS(Big Brother Big Sisters)'와 영국의 'BMF(Befriending and Mentoring Foundation)' 같은 멘터링 사업의 수혜자인 빈곤·위기 청소년의 경우, 성적이 오르고 약물남용이나 폭력이 줄었으며 대인관계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휴먼네트워크 사업에는 현재 1백72개 기관, 1만명 이상의 멘터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수 지원 사례로는 2003년부터 대학생과 저소득층 어린이 3천5백명을 연결해 일대일 학습 지원과 멘터링을 해온 SK텔레콤의 '써니(Sunny)'가 있습니다. 써니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에는 매년 1천명이 참여해 최소 6개월간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 공부 외에도 음악, 무용, 요리, 컴퓨터 등을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너에게 꿈을-꿈투유'라는 멘터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SAM(SNU Active Mentoring) 프로그램은 서울대 사범대학, 동작교육청, 관악구청이 연계해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멘터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은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위한 공무원 튜터(Tutor)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해오던 학습 멘터링에서 그 범위를 넓혀 성장넷, 후견넷, 자활넷, 생명넷, 장애넷, 글로벌넷 등 6개 분야로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랑을 통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멘터링'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 자라나는 세대의 멘터가 돼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은 휴먼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노력이 모이면 더욱 희망차고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G

정리 · 오진영 객원기자

휴먼네트워크 사무국 ☎ 02-761-0496~7 humannet.or.kr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 '2012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유치'

"아마추어 야구 부활의 꿈을 현실로"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 한대화의 역전 스리런 등 한국 야구사의 대표적인 명장면이 동시에 아로새겨진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정확히 30년 만에 이 '추억의 필름'이 되새겨질 '찬스'가 왔다. 세계 야구 강국이 모이는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 값진 수확을 얻어낸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을 만나 대회 유치가 갖는 의미를 들었다.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40호.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무 배트 한 자루가 눈에 띈다. 강승규(47·한나라당 의원) 대한야구협회장은 "어릴 적 야구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며 배트를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봤다.

강 회장은 지역구 일정 등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적극적으로 국제야구연맹(IBAF·1백18개국 가맹) 관계자들을 설득해 결국 7월 8일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로서는 첫 유치로, 1982년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IBAF가 승인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18세 이하 선수들로 2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는 2012년 8월 말쯤 열릴 예정이다.



동아DB

2006년 쿠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미국을 꺾고 우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강 회장은 "IBAF 차원에서 일부 대륙에 편중된 야구 종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급 대회를 하나로 묶어 마케팅을 벌이는 'Together Baseball'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IBAF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야구의 높은 실력 수준, 국민들의 열정 뿐 아니라 서울이 세계 야구계가 바라는 꿈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하게 내세웠다고 한다.

아마추어 야구 붐 조성으로 고교야구 정체성 확립

"개최지 결정이 두 차례 유보되면서 우려스러웠지만 IBAF의 세계화 전략과 목표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던 것이 주효한 듯합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대회 스폰서 유치나 인프라 활용, 마케팅 측면에서 그 어느 나라 도시보다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대회는 침체된 국내 아마추어 야구의 질적 발전과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마추어 야구는 그간 프로야구에 가려 체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

특히 프로야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고교야구는 그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는 프로야구의 인기에 반사적 불이익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성적 위주의 운영관리 체제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한 원인도 크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한 붐 조성을 통해 고교야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고교야구가 엘리트 스포츠로 한국야구 발전에 기여


조영철 기자

"고교야구가 엘리트 스포츠로 한국야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에게 학습 권리를 찾아주고 '동문 마케팅' 등의 방법을 통해 관심과 참여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면 화려한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공로가 크지만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수들에게 학습 권리를 찾아주고 '동문 마케팅' 등의 방법을 통해 관심과 참여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면 화려한 부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선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생각이다.

"현재 53개 고교 팀에 대해선 한국야구 발전을 이끈 '건강한 축'으로 근간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의 수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야구팀이 없는 학교엔 클럽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수들의 학습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토너먼트 대신 주말 리그제가 도입된다. 강 회장은 "현장 지도자들이 경기력 저하를 걱정하지만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야구선수의 꿈을 품었던 강승규 회장은 아마추어 야구 부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연맹 부활 등 실업야구 살리는 방안 모색

강 회장은 야구선수로서의 기본 소양,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이는 그가 지난 3월 일본 최고의 고교야구 대회인 고시엔대회를 참관하면서 절실히 느낀 부분이다.

"대회 입장식이 한 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그 많은 선수들 중 단 한 명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경기도 못 뛰고 퇴장조치를 당한다더군요. 경기 중에도 선수가 실수를 하고 흥분해 글러브를 내팽개친다든지 하는 일이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야구인이 갖춰야 할 '룰'의 전달 체계가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교야구와 함께 과거 명선수를 배출했던 실업야구의 부활도 추진할 뜻을 내보였다. 강 회장은 "고교 졸업 선수들의 직업 선택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라며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업연맹 부활 등 실업야구를 살리는 방안을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심도 있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인터뷰 내내 "이번 대회가 한국야구, 특히 아마추어 야구 중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야구인들이 바라는 아마추어 야구 부활의 꿈을 짊어진 선장다운 자신감이었다. G

글 · 유재영 기자

"대관령은 세계 음악축제의 高峯(고봉)"

대관령국제음악제 7회째 이끄는 강효 예술감독

강효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미국 줄리아드음대 교수)은 대관령을 세계적인 음악축제 명소로 끌어올렸다. 세종대왕의 칭호를 딴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를 세계 정상급으로 키우는 등 한국문화의 저력을 알리기 위한 강 교수의 노력엔 끝이 없다.



지난해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학생들.

'클래식 음악제가 열리는 3주 동안 관람객 약 5만명 방문, 저명 연주가 시리즈 거의 매진, 세계 정상급 첼리스트 지안 왕 등이 격찬한 아시아 최고의 음악제, 2006년부터 음악제 연주 실황이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과 유럽방송연맹회원 11개국 라디오방송 전파를 타고 연간 약 3억명 청취, 경제유발 효과 연 1백40여 억원, 추정 브랜드 가치 4천4백억원…'.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일까? 아니다. 2004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대관령국제음악제의 화려한 성적표다. 첫해 관람객 1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명 가까이 유치하는 등 쑥쑥 성장하고 있는 이 음악제는 대관령을 세계 음악축제의 고봉(高峯)으로 올려놓았다.

작은 지역음악제를 이처럼 세계적 음악제로 키운 데는 음악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정부와 강원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예술감독 '강효의 힘'도 컸다고 국내외 음악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강효(61).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기획하고 7년째 음악제의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1978년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인 미국 줄리아드음대 교수에 부임한 데 이어 2006년 예일음대 교수를 겸하게 됐고, 1995년 '세종솔로이스츠'를 창단해 미국 CNN이 '세계 최고의 현악 앙상블 중 하나'로 극찬할 만큼 키워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모델은 미국의 '아스펜음악제'. 강 교수가 30여 년간 주관하고 참여한 국제음악제다.

"60년 역사의 아스펜음악제는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와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음악제 기간에 연주회와 함께 학생들이 거장에게서 배우는 음악학교, 즉 마스터클래스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세계적 음악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꾼 거죠."

대관령에서 음악학교 병행… 미래의 연주자 양성

한국의 자연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강 교수는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대관령이야말로 장차 아스펜에 버금가는 국제음악제를 열 만한 자연조건을 갖췄다고 내다봤다. 2004년 첫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그렇게 막연한 꿈만으로 탄생했다.

"첫해는 연주자 섭외가 쉽지 않았어요. 올해 드디어 알펜시아 리조트에 마련한 전용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은 가설무대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 나름의 낭만이 있지만요(웃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통영국제음악제와 명성에서 쌍벽을 이룬다. 두 음악회는 콘셉트와 레퍼토리가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통영이 연주회 위주인 데 비해 대관령에는 음악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가 대관령에서 음악학교를 병행 운영하기로 한 것은 줄리아드음대와 예일음대에서 장영주, 길 샤함, 김지연, 안 트리오 등을 가르치는 등 '될성부른 떡잎'을 꾸준히 키워 온 연장선에 있다. 그는 매년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각국 교수진을 불러 학생들과 다리를 놓는다.

올해는 24명의 교수진이 2주 동안 독일, 영국, 미국 등 9개국에서 참가한 1백6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친다.

"국제음악제는 뭐니 뭐니 해도 '질'이 중요합니다. 연주회와 연주자가 세계 수준이 아니면 명성을 쌓을 수 없어요. 올해도 면면이 화려합니다. 거의 매년 참가하는 첼로 거장 알도 파리소(예일음대 교수)와 지안 왕(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첼리스트) 외에도,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리제 드 라 살르, 뉴욕필하모닉의 위촉 작곡가 리처드 대니얼 푸어, 첼리스트 정경화 등 수십 명의 스타들이 출연합니다."

강 교수는 세계무대의 흐름에 맞게 매년 신선한 주제를 선별하고 그에 맞춰 프로그램을 짠다. 올해 주제는 창조와 재창조(Create & Recreate). 강 교수는 창조와 재창조가 이어지는 재미난 레퍼토리는 "마치 인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발명과 발견으로 진화해온 역사를 축하하자는 음악적 은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때로는 소년처럼 수줍은 표정을 짓다가도 '문화의 힘'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열정이 넘친다.

"제가 세종대왕의 칭호를 딴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건 그분의 칭호와 한국문화의 힘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문화가 탄탄한 나라의 아이들은 어딜 가나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더욱이 음악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아름다운 음악 한 소절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올해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 등을 강원도민에게 무료로 선보인다. G

글 · 최은숙 기자

제7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일시 7월 23일~8월 13일 **장소**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 콘서트홀(6백30석), 강릉, 춘천 등 문예회관, 월정사, 대학 콘서트홀 등 **프로그램** 3주간 50여 회 **참가 인원(예상)** 연주자 46명, 9개국 학생 1백60여 명, 관람객 등 약 5만명 **문의** 강원도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실 033-249-3395 www.gmmfs.com


조영철 기자
강효 줄리아드음대 교수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연주회와 음악학교를 겸한 수준급 음악축제로 만들었다.

"전쟁과 빈곤 이겨낸 한국처럼 탄자니아도 잘살아보세"

새마을운동 배우러 온 느야드지아 팀장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느야드지아 팀장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을 배웠다. 그는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한국은 특별하다"며 "전쟁과 빈곤을 이겨낸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얻는다"고 말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만난 건 고교시절이던 1986년 교과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온통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였죠.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있어요. 우리끼리 그럽니다. '우린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 라고요."

탄자니아의 저슨 아이작 느야드지아(45)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팀장은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25일 방한했다. 탄자니아 외에도 가나, 우간다, 에티오피아, 감비아에서 21명의 관리가 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ST-EP)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 기업과 대학들을 둘러봤다.

"어느 한국 기업의 광고에서 본 문구가 인상 깊어요. '자원은 고갈되지만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다' 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원이 별로 없는 한국은 탁월한 리더십과 국민의 의지, 그리고 아이디어로 부국이 됐으니까요."

느야드지아 팀장은 보름간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농업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농업 생산량을 늘려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자국민에게 하루 세 끼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느야드지아 팀장을 비롯한 탄자니아 지도자들의 당면 목표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한국은 아프리카와 같은 수준의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작은 시골 마을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어 주민들이 마을 정보센터에 모여 곡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래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부터 시골까지 '잘살아보겠다' 는 의지와 교육열이 한국의 저력임을 목격했습니다."

"당면 과제는 국민 세 끼 배부르게 먹는 것"

탄자니아는 2006년부터 유엔의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에 참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지구촌 빈곤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개발 사업이다.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15개국 80여 개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물자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느야드지아 팀장은 이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스텝재단

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은 아프리카 리더십 프로그램을 위해 탄자니아를 비롯해 가나, 우간다, 에티오피아, 감비아에서 21명의 관리를 초청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한·아프리카 리더십 워크숍.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었고 나라 전체가 주저앉을 정도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절대빈곤을 딛고 세계 속에 우뚝 섰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런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경북도가 지원하는 탄자니아 내 코리안 밀레니엄 빌리지를 책임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지역이 불과 4년 만에 눈부신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왜 빨리 시작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급식을 주고 교사들을 재교육시켰습니다. 열악한 학교 환경도 개선했지요. 그러자 학생들의 출석률과 졸업률 모두 치솟았습니다. 탄자니아는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에 늦게 참여했지만 교육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거뒀지요. 남녀 간 교육격차도 점차 해소되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밀레니엄 빌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아 사망률과 전반적인 질병 발병률도 크게 감소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경제발전의 기본이 바로 건강한 노동력이라는 것이다.

에이즈와 말라리아는 특히 골칫거리다. 에이즈의 경우 환자들이 함께 모여 치료를 받으면서 전염을 막고, 말라리아는 각 가정에 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소독을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인 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느야드지아 팀장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언제까지 국제 원조에 기댈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력갱생' 입니다. 마을 하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마을 운영을 통해 경험과 교훈을 얻고 이를 아프리카 전역에 퍼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절한 시기 경제발전 이끈 '리더십' 부러워"

그는 과거의 선진국 원조는 대개 '우린 줬으니 할 일 다했다' 는 식이었는데, 이건 안 된다고 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한국은 '특별하다' 고 했다.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었고 나라 전체가 주저앉을 정도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절대빈곤을 딛고 세계 속에 우뚝 섰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런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조선일보

느야드지아 팀장은 보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이 탁월한 리더십, 국민의 의지, 아이디어로 부국이 된 것을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발전을 이끈 '리더십' 이 부럽다고 했다. "고교시절 교과서에서 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도 갔었어요. 독재자라는 평가가 있다지요? 절대빈곤을 겪어보지 않고 말하긴 쉽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인들은 압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적절한 때 나라의 힘을 결집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G

글 · 김남인(조선일보 사람들팀 기자)



성주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 선남면 주민들에게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자식 같은 참외농사 걱정을 덜어줄 '선물'이다.

'희망 물길' 흐르는 낙동강살리기 현장을 가다

"이제 홍수 걱정은 덜고 살지 않겠나"



낙동강 1천2백 리 인근 주민에게 강은 삶의 터전이다. 낙동강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얻지만, 여름철이면 수마(水魔)로 변하는 강물에 노심초사다. 이들에게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낙동강 물길 따라 강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미보 인근 경북 구미시 선산읍, "4대강살리기는 희망"

"주민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은 새로운 소득원"

대대로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지어온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백8가구가 사는 이 마을은 농사가 잘되고, 경북지역에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고을로 불릴 만큼 교육수준이 높은 곳이다.

독동리 주민들은 요즘 곧 완공될 구미보를 보며 꿈에 부풀어 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구미보가 완공되면 유명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안동댐에서 시작된 자전거길의 중간 휴식처가 될 독동리는 KTX 김천구미역과 연계해 구미보를 테마로 한 대단위 관광촌으로 바뀌게 된다.

정천석(73) 이장은 "구미보가 완공되고 자전거길이 나면 주민들이 관광업에 진출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게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동리 주민에게 4대강 사업은 '희망'인 것이다.

준설토를 저지대의 농지에 덮고 다시 경지정리하는 농지개량 사업은 농지를 옥토로 바꿔주는 '덤'이다. 주민 강석태(82) 씨는 "마을 논밭은 점토(찰흙)가 많아 비만 오면 침수를 걱정해야 했다"며 "모래 성분이 많은 준설토로 농지를 개량하면 침수 걱정을 더는 것은 물론, 우엉 등 고소득 작물 재배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데는 순조로운 보상도 한몫했다. 정 이장은 "논 한 마지기당 2년 치로 평균 1백16만원 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강정보 인근
경북 성주군 선남면, "4대강살리기에 안심"
"4대강 사업은 농사 걱정 덜어줄 '선물'"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주민들은 2003년 여름을 잊을 수 없다. 태풍 '매미'로 낙동강 주변 참외밭이 모두 물에 잠기고, 비닐하우스가 폐허로 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성주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참외 산지다. 특히 낙동강의 풍부한 물을 먹고 자란 선남참외는 성주참외 중 으뜸이다.

참외 농사는 물에 달렸다. 당도를 물이 좌우하고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면 참외는 쉬 썩어 출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장대비만 내리면 '매미' 때처럼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인다.

이런 주민들에게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걷어내 홍수 걱정을 덜어주는 4대강살리기 사업은 자식 같은 참외 농사 걱정을 덜어줄 '선물'이다.

주민들은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찬반 논란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늦어지면서 농지개량 사업 지구 지정도 미뤄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 결정을 내려줘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 김두상(52) 씨는 "저런 공사를 농민 스스로 하면 평생 가도 못 한다"면서 "사업이 끝나 침수지대에서 벗어나면 우리도 좋고, 정부도 수해 보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민 젊은 층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김 씨는 "이 사업은 농사를 마음 놓고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이 한강 덕을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낙동강 덕 좀 보며 살고 싶다"고 했다.

달성보 인근
경북 고령군 개진면, "4대강살리기는 당연지사"
"당연히 해야… 반대할 이유 없다"

고령군 개진면도 2002년 태풍 '루사'로 마을 전역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던 곳. 당시 개진면은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해 주민들이 한밤중에 대피하고 공무원, 군장병, 예비군까지 모두 동원돼 복구에만 한 달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제방을 높이고 물길을 터주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주민 절대 다수가 찬성이다. 박승진(46) 씨는 "수량 확보를 위해 준설이 꼭 필요하다. 2002년 물난리가 나고, 이듬해에도 제방이 터질 뻔해 비상 대기했다"며 "강바닥을 낮춰 홍수에 대비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당연히 찬성한다"고 말했다.

함안보 인근
경남 창녕군 길곡면, "4대강살리기는 생존 문제"
"반대론자들, 농사 지어보면 우리 심정 알 것"

경북을 지난 낙동강은 창녕에서 경남 구간이 된다. 낙동강은 창녕부터 하류로 분류된다. 유속은 느리지만 수량이 많고 강폭이 넓어 많은 비가 내리면 주민은 범람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낙동강에 인접한 창녕군 길곡면 역시 침수가 잦다. 김영택 창녕군 부군수는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이 연례행사였지만, 지난 10년간 군의 제방보강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요즘은 홍수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창녕군에서는 함안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물길을 터주고 제방을 높이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주민 다수가 긍정적이다.

길곡면 신촌리 김종택(54) 이장은 "지금도 논이 물에 잠기고 (낙동강) 범람이 연례행사인데 공사가 끝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니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우리에게 강물은 생존의 문제다. 앞으로 홍수 때든 갈수기든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찬성"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에 대해선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보면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gonggam.korea.kr) 제공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달성보 인근 공사 현장.
▲ 구미보 전경.

未堂이 거닐던 야트막 백리 길 올해도 길섶엔 국화 피어나겠지

전북 고창 땅에는 없는 게 없다. 사계절 아름다운 명산과 생명력 넘치는 갯벌이 있고, 참게와 민물장어가 서식하는 강과 운치 그윽한 호수도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 읍성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자연은 절경을 이루고, 문화는 깊은 내력을 자랑하는 고장이 바로 고창이다. 그런 고창 땅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려면 1백 리(40킬로미터)에 이르는 질마재길을 두 발로 직접 걸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고창 땅은 산은 낮고 들은 넓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생산력이 높아서 사람 살기에는 그만이다. 그래서인지 청동기시대에 이미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갖춘 지배자가 출현했다.

오늘날 고창 전역에 산재한 고인돌은 그 지배자들이 남긴 자취다. 고창은 세계적인 고인돌 밀집지역이다. 인접한 고창읍 매산리, 죽림리, 도산리 등과 아산면 상갑리 일대에만 무려 4백47기나 몰려 있다. 길가나 논밭 옆, 산비탈 솔숲에 나뒹구는 바위덩이들은 십중팔구 고인돌이다. 지상석곽식, 남방식, 북방식 등 우리나라 고인돌 양식을 모두 보여주는 이 고인돌군은 2000년 강화도와 전남 화순의 고인돌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질마재길은 고창 고인돌의 역사와 유물을 보여주는 고창고인돌박물관(063-560-2576)에서 시작된다. 박물관을 뒤로

인천강의 맑은 물도 잠시 쉬어 가는 병바위나루터. 뒤쪽에 병바위가 우뚝하다.





질마재 고갯마루에 세워진
장승과 이정표.

하고 조금만 걸으면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고인돌이 나뒹구는 산기슭에 당도한다. 집채만한 것도 있고, 묘 앞에 놓인 상석처럼 아담한 것도 눈에 띈다. 선사시대의 공동묘지 사이로 질마재길은 구불구불 이어진다.

이윽고 매산재를 넘고 오베이골 생태습지를 지나니 운곡서원이 지척이다. 파란 함석지붕이 올려진 운곡서원에서는 깊은 연륜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운곡서원에서 장살비재 초입까지는 운곡저수지를 끼고 가는 호반길이다. 하지만 길과 호수 사이에 장벽 같은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 데다 무성한 나뭇가지가 시야를 가로막아 운치는 덜하다.

장살비재부터는 질마재길의 2코스가 시작된다. 완만한 내리막 구간인 고갯길을 내려서면 금세 원평마을이다. 여기서부터 질마재길은 인천(仁川)강의 물길을 따라간다. 물 맑은 인천강은 노랑부리백로, 붉은배새매, 말똥가리, 새홀리기,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검은목두루미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자연풍광도 수려하다.



특히 아산면 반암리 선운초등학교에서 약 7백 미터 거리의 병바위 주변 풍광은 선경(仙境)인 듯 아름답다. 거꾸로 세워진 호리병처럼 보이기도 하고, 결연한 표정의 사내 얼굴 같기도 한 병바위의 독특한 형상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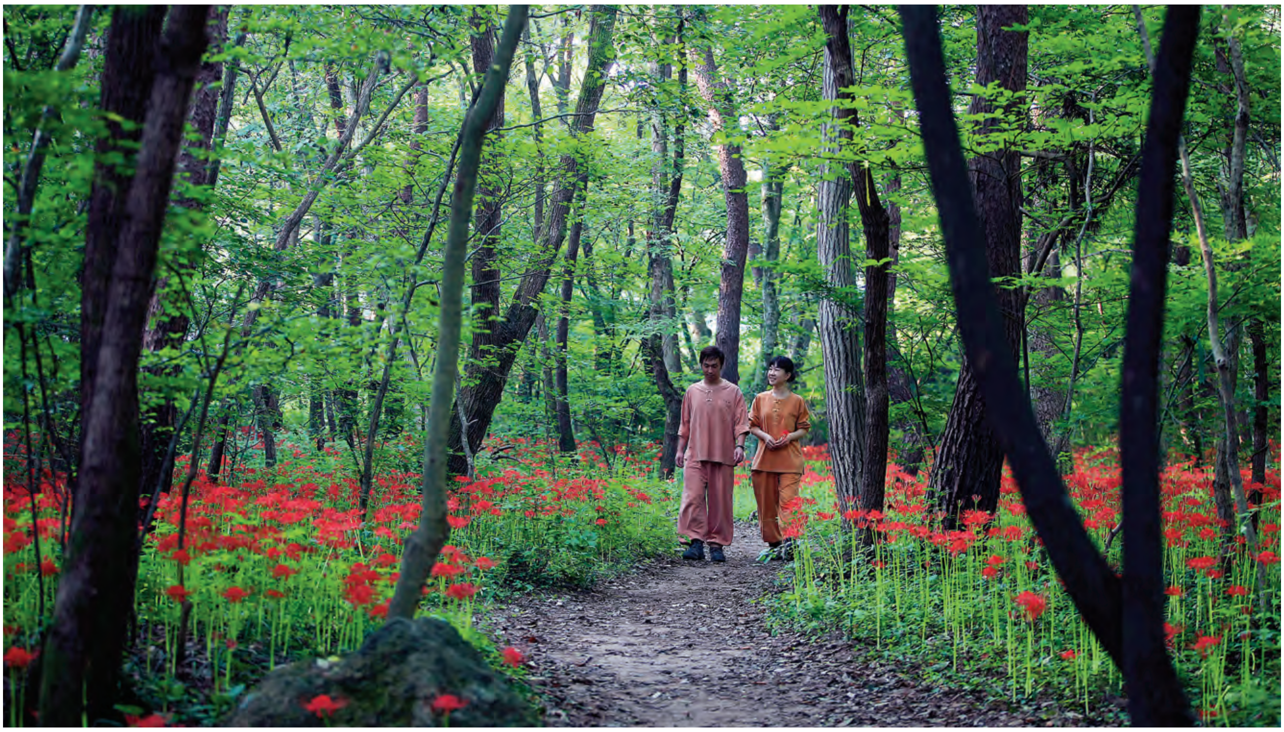
병바위에서 2코스의 종점인 연기교까지 4.4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기나긴 강둑길이다. 길은 단조롭기 그지없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숲 그늘도 없어서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다. 물빛이 살아 있는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연신 튀어오르고, 길가의 숲에서는 복병처럼 몸을 숨긴 새끼 고라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한다.

전북의 진정한 매력 알려면 질마재길 걸어라

질마재길의 3코스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순환형 코스다. 애초에는 미당시문학관을 지나고 용산교를 건너서 갯벌체험마을인 하전마을로 향하는 코스였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도로 구간이 많아서 걷기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순환형 코스로 개선했다.

3코스의 시점이자 종점인 연기교에서 2.6킬로미터 거리의 꽃무릇쉼터까지는 산림경영모델숲을 가로지르는 산길도 있고, 분청사기 도요지와 연기저수지를 거쳐가는 임도도 있다. 유유자적하며 걷기에는 임도길이 더 낫지만, 꽃무릇(석산)이 만발하는 9월 중순쯤에는 일부러라도 산림경영모델숲의 꽃무릇 군락지를 찾아볼 만하다.

꽃무릇쉼터에서는 소요산(4백44미터) 정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설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소요산 자락에는 무려 8만 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정상 바로 아래의 바위틈에 위태롭게 들어선 소요사(063-564-1227)뿐이다. 백제



선운사 도솔암 인근의 아름다운 꽃무릇길. 9월 중순쯤의 풍경이다.

위덕왕 때 창건됐다는 천년고찰인데도 규모는 소박하다. 소요사 입구에서 질마재 고갯마루까지의 거리는 1킬로미터다.

질마는 말안장을 뜻하는 '길마'의 사투리다. 야트막한 질마재도 말안장을 닮았다고 한다. 고갯길답지 않게 사람을 긴장시키지도 않고, 숨 가쁘게 하지도 않는다. 구렁이 담 넘듯 편안하게 넘나드는 고갯길이다. 자동차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인 부안면 선운리 진마마을 사람들이 읍내 장터에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다. 오늘날 인적 뚝 끊긴 고갯마루에는 근래 세워진 이정표와 멀뚱한 얼굴의 장승들만 서 있다.

미당시문학관에서 시인의 손때 묻은 유품도 감상

콧노래 흥얼거리며 질마재를 내려서면 어느덧 미당시문학관(063-560-2760)에 당도한다. 폐교된 선운분교를 리모델링한 문학관에는 미당의 영욕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와 육필 원고, 사진과 상장, 서적, 일상용품 등 시인의 손때 묻은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문학관 근처에는 미당이 태어난 옛집이 말끔하게 복원돼 있다. 그리고 문학관과 마주보는 안현마을의 산등성이에는 미당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안현마을은 본래 이름보다도 '돋음볕마을'로 더 유명하다.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돼 있다. 미당의 대표작품인 '국화 옆에서'를 소재로 '누님'의 얼굴과 노란 국화, 형형색색의 꽃과 나비를 벽돌담과 슬레이트 지붕에 그려놓았다. 벽화 속 인물은 모두 이 마을 주민들이어서 소박하고도 정감이 넘친다.

진마마을에서 연기교로 되돌아가는 길은 산솔모텔 뒤편으로 나 있다. 흔적만 남은 옛길을 약간 다듬어서 약 3킬로미터 길이의 멋진 산길로 탈바꿈시켰다.

연기교를 건너서면 질마재길의 마지막 구간인 4코스가 시작된다. '보은길' 또는 '소금길'로 명명된 4코스는 선운사 골짜기를 가로질러 도솔암, 용문굴, 소리재, 참당암을 지나고 선운산 능선을 넘어서 심원면 하전마을 바닷가로 내려선다.

선운사(063-561-1422)는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검단선사가 창건했다. 당시 선운산의 진흥굴과 용문굴, 서해 칠산 바다에는 산적과 해적이 들끓었다고 한다. 검단선사는 그들을 교화해 도적질을 그만두는 대신에 소금 굽는 법, 즉 화염(火鹽) 제조법을 가르쳐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양민이 되어 소금을 구우며 생계를 꾸리던 그들은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씩 '보은염'이라는 이름의 소금을 선운사에 보내곤 했다. 그런 전통은 광복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됐다고 한다.

선운사를 품은 선운산(3백55미터)은 일명 '도솔산'으로도 불린다. 숲이 울창하고 기암괴석이 많아서 옛날부터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풍광이 빼어난 산이다. 게다가 TV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인 용문굴을 비롯해 진흥굴, 도솔암,



낙조대, 천마봉, 장사송(천연기념물 제354호), 도솔암마애불(보물 제1200호) 등의 절경과 볼거리가 많다.

또한 선운사와 용문굴 사이의 등산로와 계곡 주변에는 꽃무릇 군락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초가을이 되면 핏빛보다 더 붉고 선연한 꽃무릇 꽃길이 만들어진다.

소금 굽는 벌막 복원… 화염 만드는 법 재현 행사

선운산 능선에 올라서면 서해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참당암(063-563-3440)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산 아래의 첫 마을인 심원면 연천마을에서 화산마을, 사등마을을 거쳐 하전마을로 이어지는 4.4킬로미터의 질마재길은 포장도로 구간이다.

막바지에 이른 길에서 딱딱하고 삭막한 포장도로를 걷는 일은 적잖이 고생스럽다. 검단소금전시관 앞의 갯벌은 백제시대에 소금을 채취했던 곳이다.

현재 전시관 건물 옆에는 소금 굽는 벌막도 복원돼 있어서 화염 만드는 법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검단소금전시관과 이웃한 하전마을은 바다보다 더 넓은 갯벌을 품었다. 드넓은 갯벌을 누비며 조개 잡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건강한 갯벌에서의 짧은 체험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코스 정보

1코스(고인돌길) 8.3킬로미터, 2시간 30분 소요.
고인돌박물관 → 고인돌 유적지 → 오베이골 생태습지 → 운곡저수지 → 운곡서원 → 용계리 청자도요지 → 장살비재

2코스(복분자 · 풍천장어길) 7.7킬로미터, 2시간 10분 소요.
장살비재 → 부정마을 농수로길 → 할매바위 → 마명마을 모정 → 아산초교 → 병바위 → 인천강 병바위나루터 → 반암교 → 수변데크 → 산림경영모델숲

3코스(질마재길) 11.3킬로미터, 3시간 30분 소요.
산림경영모델숲 → 꽃무릇 쉼터 → 연기저수지 → 소요사 옛길 → 소요사 입구 → 질마재 → 미당시문학관 → 미당 생가 → 산솔모텔 → 연기마을 → 연기교(강나루식당)

4코스(보은길) 12.7킬로미터, 4시간 30분 소요.
연기교 → 선운사 → 도솔암 → 용문굴 → 소리재 → 참당암 → 연천마을 → 화산마을 → 사등마을 → 검단소금전시관 → 하전갯벌학습체험장
*고창문화원 | 063-564-2340, 010-8869-3701

숙박

1백여 리의 질마재길을 1박2일 일정으로 걷는다면 선운사 입구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다. 선운산관광호텔(063-561-1544), 선운산유스호스텔(063-561-3333), 동백여관(063-562-1560), 송악모텔(063-564-8014) 등의 숙박업소와 선운사의 추억(063-561-2777), 햇살 가득한 집(063-562-0320), 산사의 아침(063-562-6868) 등의 펜션이 몰려 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옆에는 오토캠핑이 가능한 야영장도 있다.

맛집

선운사 입구와 풍천 일대에는 고창의 대표 별미인 풍천장어구이와 복분자술을 내놓는 장어 전문점이 40여 곳이나 몰려 있다. 그중 선운사 초입의 삼인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강나루(063-561-5592), 풍천장어쌈밥(063-562-7520), 연기식당(063-562-1537)과 선운사 매표소 부근에 자리 잡은 아산가든(063-564-3200), 선운사 상가단지 내 동백식당(063-562-1560) 등이 추천할 만하다. 질마재길 종점과 가까운 심원면 소재지에 위치한 우정식당(063-561-2468)은 게장백반과 굴 요리가 맛있는 집이다.

가는 길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나들목(15번 국지도 · 아산 방면) → 고인돌교차로 → 고인돌박물관
*승용차는 고인돌박물관 주차장(무료)에 세워두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
서울 강남고속터미널(호남선)에서 고창행 고속버스가 40~5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출발한다. 3시간 30분 소요.





2010 여름 천공(天工)을 만나다



5

천공(天工), 하늘에서 내려온 공예가.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기막힌 솜씨를 일컫는 말이다. 7월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천공 35인의 솜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마련한 '2010 여름, 天工을 만나다'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1년에 한 번 각자의 기능과 예능을 일반인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매듭장, 소목장, 옹기장, 악기장, 불화장, 나전장, 단청장 등 전통공예 종목을 시연하고 이들이 만든 공예품을 전시한다. 전통공예 작품뿐 아니라 그간 만나기 어려웠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제자들이 시연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장인의 생생한 손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인사동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특색 있는 행사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공개되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연 행사는 매일 6~7개 종목이 오전 10~12시, 오후 2~4시에 펼쳐진다. 자세한 시연 일정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www.chf.or.kr





1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씨가 목조 불상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 씨가 관음보살도 그리기를 시연하고 있다.
3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이재순 씨가 판각화의 석판 뜨는 작업을 해보이고 있다.
4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정봉섭 씨가 매듭 제작 시연을 하고 있다.

5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씨가 만든 갓신.
6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고흥곤 씨가 만든 산조가야금.
7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박명배 씨가 서안 만들기 시연을 하고 있다.
8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이영수 씨가 만든 와공후.







"고객이 잘못 낸 1천원도 돌려주는데…"

1억2천만원 든 가방 찾아준 박장수 '우체국장님'

"큰돈을 잃어버리신 분은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알려져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부산 동아대 승학캠퍼스 우체국 박장수 국장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지 부담스럽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결국 "우체국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우정사업본부 홍보실 측의 거듭된 설득에 마지못해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박 국장은 우체국 내에서 청백리의 표상이 됐지만, 그는 "저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며 방송사 인터뷰 등도 모두 거절했다고 했다.

그가 KTX에서 억대 현금 가방을 발견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것은 지난 6월 24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가방이 눈에 띄었다.

열차 내 좌석에서 잠을 자던 박 국장은 부산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주인이 찾아오지 않아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부산에서 내린 박 국장은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하고 가방 주인의 지인과 연락해 주인에게 가방을 돌려줬다. 가방에는 5만원권 2천만원을 비롯해 1만원권과 수표 등 모두 1억2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가방을 잃어버린 김모(74) 씨는 충남 아산에 사는 아들이 가게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마련해 KTX를 타고 가던 중 가방을 놓고 내렸다.

박 국장이 연락했을 때는 김 씨가 이미 아산역에서 내려, 아들에게 가던 도중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을 뒤늦게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박 국장의 선행은 부산체신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알려졌다. 김 씨가 사례를 하고자 했으나 박 국장이 이를 거절하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

김 씨는 편지에서 "눈 뜨고도 사기를 당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칠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적었다.



우정사업본부

KTX 열차에서 1억2천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준 박장수 국장.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

박 국장은 올해로 26년째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소 지역사회에서도 봉사와 희생정신이 남달라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전했다. 박 국장은 "평소 좌우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거창한 것은 없다. 그저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면 족하다"고 했다.

"큰돈을 봤을 때 솔직히 좀 심정적으로 동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박 국장은 "우체국 직원들은 창구에서 고객이 잘못 낸 1천원, 2천원도 돌려주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가 아버지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했겠다"고 묻자 이번에도 역시 대답이 심드렁했다.

"가족들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어제 조카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지게 됐네요."

진정 그에게서 선행은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었다. G

글 · 박창욱(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 기자)

환상의 짝꿍

글과 그림 | 안종만



우리의 바른 습관이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입맛 잃기 쉬운 요즘… “녹색 메뉴 대령이오”

“그 집은 요즘 뭐 해먹어요?”

수십 년씩 살림을 해온 주부들도 더위로 입맛을 잃은 요즘엔 반찬 걱정이다. 이럴 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여름철 ‘건강친화 녹색식단’을 이용해보자. 25가지 메뉴, 1백20가지 식단이 마련돼 있어 반찬 걱정을 덜고 가족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제철 식품을 이용하고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몸에 좋고 에너지 소비도 적은 무침 등의 조리법 위주로 만들어졌다.

메뉴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별로 구성돼 다양한 가족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했다. 어린이 메뉴는 편식 예방 및 영양 공급에 중점을 뒀으며 닭고기와 햇마늘을 넣어 만든 육수에 찬밥을 끓인 ‘찬밥이용닭죽’ 등 6개 메뉴가 있다.

청소년 메뉴는 비만 예방을 위한 저지방 음식으로, 전복과 버섯을 넣고 다시마국물로 밥을 지은 ‘전복영양밥과 부추양념장’ 등 7개 메뉴가 소개됐다. 성인 메뉴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고식이섬유, 저콜레스테롤 요리법으로 구성됐으며 보리밥에 부추, 콩나물 등을 얹고 햇감자를 갈아 넣은 강된장으로 비벼 먹는 ‘강된장 부추비빔밥’ 등 12개 메뉴가 있다.

제철 재료 사용… 4인 가족 기준 1백20개 식단 제공

1백20개 식단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짜여 있으며, 식재료를 일주일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장보기 방법도 함께 소개됐다. 오는 9월부터는 장보기 방법에 농수산물 가격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식재료의 낭비가 없도록 다양한 조리법으로 같은 식재료를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국과 반찬을 2회 이상 사용하는 현실적인 식단으로 구성했다.

여름철 건강친화 녹색식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녹색식생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가을철, 겨울철, 봄철 건강친화 녹색식단도 제공할 계획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녹색식생활 nutrition.kfda.go.kr/greendiet

연령대별 여름철 녹색 메뉴

어린이용 메뉴
“찬밥이용닭죽”
닭고기와 햇마늘을 넣어 만든 육수에 찬밥과 채소를 넣고 끓인 영양죽.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용 메뉴
“수박비빔국수”
채소와 수박을 채썰어 넣고 새콤달콤한 수박고추장소스를 뿌려 먹는 시원한 비빔국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성인용 메뉴
“강된장 부추비빔밥”
보리밥에 부추, 콩나물 등을 얹어 햇감자를 갈아 넣은 구수한 강된장으로 비벼먹는 밥.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심은 금물

글과 그림 · 최영순



삶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극 〈나는 너다〉

虎父犬子… 영웅 안중근과 매국노 아들

(호부견자)



안중근 의사 서거 1백 주년을 맞아 알려지지 않은 그의 면면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문화예술계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27일부터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연극 〈나는 너다〉도 그중 하나다. 월간 〈객석〉이 기획하고, 배우 윤석화가 연출한 〈나는 너다〉는 안 의사의 삶은 물론 그의 영웅적 위업 때문에 굴욕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들 안준생의 아픔까지 깊이 있게 다룬 점이 여느 작품과 다르다.

안준생은 세 살 때 부친을 잃고 상하이임시정부가 난징으로 옮겨간 뒤로는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일본인들의 손에 떨어져 갖은 학대를 받으며 정치선전 도구로 이용당했다.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외증손자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이 처음 연극 무대에 도전해 안 의사와 안준생, 1인2역을 연기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을 위해 매일 9시간씩 연습에 몰두해온 송일국은 "첫 연극 도전이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긴장된다"면서 "안중근 장군과 달리 안준생은 친일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연기하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작품에 임하면서 그가 얼마나 가련한 인간인지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안준생에게 친일은 선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누구나 그의 처지였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은 박정자가, 그의 아내 김아려 역은 윤석화와 배해선이 맡는다.

일시 7월 27일~8월 22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엔 쉼. 8월 3~7일, 17~21일은 저녁 공연만 있음)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대한민국석 8만원, 독립석 5만원, 만세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672-3001 www.ntok.go.kr G

글 · 김지영 기자

● 〈순간의 역사, 역사의 순간-퓰리처상 사진전〉

1942년부터 2010년까지 퓰리처상을 수상한 보도사진 1백45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일시 8월 29일까지 오전 11시~오후 8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0시(7월 26일 휴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2전시실 **관람료** 성인 1만원, 중고생 8천원, 초등생·유아 6천원, 48개월 미만 유아 무료,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천원(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2-2000-6293 www.sac.or.kr

●● EBS와 함께하는 가족 뮤지컬 〈그리스 로마 신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8월 29일까지 열리는 세계 문명전인 〈그리스의 신과 인간〉과 연계해 가족을 대상으로 선보이고 있는 뮤지컬.

일시 7월 31일까지 화·목요일 오전 11시, 수·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8월 1~29일 화~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5955 www.theateryong.or.kr

●



코소보 탈출 FLEEING KOSOVO(2000년 수상작)
Carol Guzy, Michael Williamson and Lucian Perkins, The Washington Post

●●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 준비하기

1. 여행 전에는 꼼꼼하게

- 여행 4~6주 전에 의사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에 대한 상담을 하세요.
- 여행지에 대한 건강 정보를 충분히 알아두세요.
- 필요한 경우 예방 접종과 예방약 복용을 시작하세요.
- 소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2. 여행 중에도 안전하게

- 외출 후 또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 음식물은 완전히 익혀 먹고 가급적이면 끓인 물, 생수, 탄산수를 드세요.
- 위생처리가 불결한 음식은 먹지 마세요.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곤충기피제 사용, 야간에 긴소매·긴바지를 착용하세요.

3. 여행 후까지 건강하게

- 귀국 시 이상증상이 생기면 검역질문서 응답지에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 발열, 설사, 구토, 독감과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병원을 찾으세요.
- 말라리아 등 일부 질병은 6~12개월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예방 접종 및 문의사항

- 황열, 콜레라 예방접종 기관 : 전국 13개 검역소
  황열, 말라리아 예방접종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02-2262-4741)
- 기타 예방접종 문의 : 각 지역 보건소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 참조
  문의처 : 032-740-2703, 051-973-6525, 064-746-7539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4대강 살리기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 경제를 살렸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 땅, 우리 강을 보살피겠습니다.